

經營學博士 學位論文

사회주의경제권 개혁개방 이후
고용결정요인 분석 :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after Reform &
Opening Policy in the Socialistic Economy
: in Case of China and Vietnam



指導教授 俞日善

2013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宋熙駿

本 論文을 宋熙駿의 經營學博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崔宗洙 (印)
委員 羅昊洙 (印)
委員 鄭鴻悅 (印)
委員 俞昌根 (印)
委員 俞日善 (印)

The seal of Hanyang University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featuring a circular design with the university's name in Korean and English, and the year 1945.

2012年 12月 14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5
제3절 연구구성	6
제2장 기존 문헌연구	7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7
1. 수출주도 경제발전의 전제조건	7
2.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10
제2절 수출촉진전략	12
제3절 무역과 고용	14
제4절 소 결	15
제3장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	16
제1절 사회주의 경제 특징과 문제점	16
제2절 중국 베트남 전환이론	17
제4장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23
제1절 중국의 경제현황	23
1. 중국의 경제성장	23
2. 중국의 무역현황	26

3.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	29
제2절 중국의 FDI 유입 현황	36
1. 중국 FDI의 현황	36
2. 중국의 FDI정책 변화	41
제3절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	43
제4절 소 결	47
제5장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49
제1절 베트남 경제 현황	49
1. 베트남의 경제성장	49
2. 베트남의 무역현황	53
3. 베트남의 정책 변화	60
제2절 베트남의 FDI 현황	64
제3절 베트남의 노동시장변화	68
제4절 소 결	71
제6장 고용결정요인 분석	72
제1절 이론적 모형	72
1. 잉여분출설(theory of vent for surplus)	72
2. Lewis(1954) 모형	75
3. 소 결	79
제2절 추정모형	80
제3절 자료수집	83
1. 중국자료	83
2. 베트남 자료	84
제4절 추정결과 및 해석	84

1. 중국의 추정결과 및 해석	85
2. 베트남의 추정결과 및 해석	87
3. 중국과 베트남의 비교	90
제7장 결 론	92
참고문헌	94



〈표 목 차〉

표 2-1. 수출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달경로	11
표 4-1. BRICs의 국내 총생산(GDP)	23
표 4-2. BRICs 각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24
표 4-3. 동아시아 경제의 현황	24
표 4-4. 개도국의 경제성장률 비교(1960-2010)	25
표 4-5. BRICs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27
표 4-6. BRICs 각국의 수출입의 증가율	27
표 4-7. 세계 총수출입에서 BRICs 각국의 비중	28
표 4-8. 세계 주요국가 및 지역의 수출입 변화	29
표 4-9. 개혁 전후 중국의 무역체제 비교	30
표 4-10. 중국의 1980년대 무역체제개혁의 주요내용	32
표 4-11. 중국의 WTO 가입 전후의 무역체제 비교	34
표 4-12.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1970-2010)	37
표 4-13. 중국 GDP, 무역총액과 FDI	38
표 4-14. 국가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39
표 4-15. BRICs 각국의 FDI의 유입과 유출	41
표 4-16. 중국의 GDP, 무역, 고용인구, 임금의 변화	44
표 4-17. 중국의 도시화 진전	45
표 4-18 중국의 이주문제와 유랑인구	46
표 5-1. 베트남의 GDP와 산업부문별 증가율(%)	50
표 5-2. 산업부문별 GDP 비중(%)	51
표 5-3. ASEAN 5개국의 국내 총생산(GDP)	52
표 5-4. ASEAN 5개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53

표 5-5. 베트남의 대외 무역액	54
표 5-6. 베트남의 주요경제 지표	55
표 5-7. ASEAN 5개국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56
표 5-8. ASEAN 5개국과 중국의 수출입의 증가율 변화	57
표 5-9. 세계 총수출입에서 ASEAN 5개국의 비중	58
표 5-10.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58
표 5-11.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	59
표 5-12. 소유형태별 GDP비중(%)	61
표 5-13. 소유형태별 공업생산량(%)	62
표 5-14. 베트남의 연도별 FDI	65
표 5-15. ASEAN 5개국의 FDI의 유입과 유출	66
표 5-16. 베트남의 산업부문별 FDI (1988-2009년간 누계)	67
표 5-17. 10대 외국인직접투자국	68
표 5-18. 베트남 경제의 GDP, 무역과 고용지표	69
표 5-19. 베트남의 도시화진전	70
표 6-1. 실증분석의 추정결과 : 중국경우	86
표 6-2. 고용효과에 추정결과 : 베트남의 경우	88

<그림 목 차>

그림 3-1. 생산가능곡선 : 정치지배력과 경제후생	18
그림 3-2. 정부의 의사결정	21
그림 3-3. 일반 국민의 의사결정	22
그림 6-1. 잉여노동이 존재한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이익	74
그림 6-2. 농업부문의 노동의 한계생산물	76
그림 6-3. 제조업부문의 한계생산물곡선과 고용량	78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after Reform & Opening Policy in the Socialistic Economy : in Case of China and Vietnam

by Song Heui-Joo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This paper starts from three questions:

Why do China and Vietnam(C&V) implement the reform & open policy in a gradual way unlike USSR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U&E)? Based on two different initial conditions—one is that there is the government the strong military group has taken over in C & V, the other is that C&V is poorer and lower in education level than U&E—with popular economic tools(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social indifference curve) it can be shown that C&V can pay the lower opportunity cost to maintain the political system of the Communist party and implement the reform & open policy only in the economic aspects.

What i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reform & open policy in C&V? Since the reform & open policy of two countries, they have experienced more rapid economic growth, more increase of employment, more trade expansion, inward-FDI and migration from urban area to

rural are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It is found that these facts a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Which factors have an effect on the increase of employment? Based on two theories—Vent for Surplus and Lewis(1954) Model, it can be recognized how trade and FDI generate the economic growth and how they increase labor employment. To identify these relations between factors, the estimation equations for empirical test are derived from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and the conditions of profit maximiza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economic growth and the increase of domestic products have more effect on the increase of employment of both countries than export and FDI. However export effect in Vietnam is stronger than that in China, while FDI effect in China stronger than that in Vietnam. The effect of technological absorption relating to export and FDI in China is better than in Vietnam.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Vietnam combines the unskilled labors with FDI and produces the simple processed product and exports them, which generates the increase of employment. The export doesn't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employment in China. In stead, the labor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technology absorption derived from FDI is generating the employment in China. So, it is concluded that Chinese industry is moving toward the structure which needs more skilled labor than Vietnam.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경제는 서구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동구 소련중심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양분되었다. 두 체제는 정치적으로 냉전체제를 구축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공산당의 일당 독재체제,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의한 계획경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와 경쟁 속에서 체제 내에 비효율성이 제고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978년 중국을 필두로 러시아, 동구유럽,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의사결정권한을 정부의 관료집단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정치부문은 공산당 독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경제부문은 자원배분기구로서 계획경제를 포기내지 수정하고 시장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외부문은 무역을 촉진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수용함으로써 국제시장에 적극 참여한다.

지금까지 이들 국가들은 과거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대한 경험에서 무역은 제국주의의 착취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런 인식하에서 기본적으로 폐쇄경제 틀에서 경제가 운영되었고 부분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권과 원조나 물물교환방식의 무역이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계획경제는 이처럼 대부분 경제부문에서 가격, 투자, 생산과 분배가 정부관료들에 의해 결정되고 운영되었다. 개혁개방정책은 이러한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투자와 생산을 결정하여 시장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폐쇄경제 틀에서 벗어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를 통해서 세계경제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¹⁾

사회주의 국가들이 1980년대 전후에 걸쳐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대부분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는 구 소련과 동구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진 방식이다. 정치개혁을 통해서 공산당 일당독재를 혁파하여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하고, 경제개혁을 통해서 시장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민간자율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진 방식이다. 이들 국가는 공산당 중심의 관료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지금도 어느 방식이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데 더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²⁾ 경제적 성과면에서 지금까지 후자가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1978년에 모택동의 계획경제하의 중화학중심 경제체제에서 덩소평의 시장경제하의 경공업중심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제체제전환은 개혁개방정책으로 표현되었으며 이 이후 중국은 극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이후 약 30년간 연평균 10%내외의 고도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0년 현재 GDP규모 세계 2위, 교역규모 세계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³⁾

개혁개방정책은 크게 개혁정책과 개방정책 두 개의 정책으로 나뉜다. 개혁정책의 핵심은 자율권 확대와 그에 따른 책임제이다. 즉 농촌에서는 인민공사의 틀에서 벗어나 자기 책임 하에 농업 및 비농업분야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도시지역에서는 국유기업에 대해 이윤상납제 대신 이윤유보제를 실시하여 경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였고 비국유기업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계획경제 밖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손실과 이익을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쟁체제가 상품시장에 작동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개방정책의 핵심은 수출촉진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이다. 즉 상품수출, 관

1)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경제를 ‘전환 경제’ 또는 ‘전이경제’(transition economy)라고 한다.
 2) Kornai, J. & Y. Qian(2009), *Market and Socialism*, Palgrave Macmillan.
 3) 중국통계국, 중국통계적요에서 1979-2010년간 연평균 GDP성장률 9.5%로 계산함
 4) 중국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농민들에 의해 설립된 공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비농업부문’의 각종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국유기업을 향진기업이라 한다.

광수입과 외국자본 직접투자 등을 통해 대규모 외화획득이 가능했다. 이것을 이용하여 해외로부터 중국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재와 원자재, 기술을 수입하고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결합하여 노동집약재의 생산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용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노동인구가 도시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촉진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대외개방은 체제개혁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면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즉 개혁이 무역회사의 자율권확대를 가져와 개방을 촉진하고 이러한 개방촉진은 무역과 외국직접투자의 확대를 가져와 다른 기업들의 자율적 경영권 촉진하였다.

개혁정책과 개방정책 어느 것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에 더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이론이 많지만⁵⁾ 1978년에 공포한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베트남은 1975년 통일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생산은 정체되고 경제성장은 평균 0.4%에 불과했으나 인구증가율은 2.3%를 상회하였다. 주요 산업인 농업경제도 피폐하여 1980년에는 매년 15억 7,600만 톤의 식량을 오히려 수입해야 했다. 매년 물가는 평균 20%이상 상승하였으며 항시 생필품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따라 수입은 수출의 4-5배를 상회하여 할 만큼 만성적인 경상수지에 시달렸다.⁶⁾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여러 사업들은 자본부족으로 완성되지 못했으며 경제운용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은 베트남 국내경제는 심각한 침체 위기에 빠뜨렸다. 특히 80년대 초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평균 30-50%, 1985년 말에는 587.2%, 1986년에는 774.7%에 도달하는 등 개발도상국이 보여준

5) 나카가네 카즈지(1999) 중국경제발전론 제8장 대외무역과 경제발전

6) 베트남 정부는 전쟁 중 파손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제2차 경제개발5년계획(1978-1980)을 실행하였다. 이 계획은 의욕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으나 결과는 목표에 크게 미달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이 기간 동안 농업생산 1.9%, 공업생산 0.6%등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1인당 사회총생산 증가율은 0.8% 감소하였다. 오인식(2004)참조

전형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베트남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⁷⁾

이러한 베트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하였다.⁸⁾ 이러한 개혁 개방으로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에 연평균 8%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고성장과 베트남의 GDP 규모는 1990년의 6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973억 달러로 16배 증가하였으며, 1인당 GDP는 동 기간 93달러에서 1130달러로 12배 증가하였다.⁹⁾ 특히 정부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은 기존의 농업부문의 쌀 생산과 수출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높은 성장을 유도하였다. 제조업은 전기전자산업, 철강산업, 화학산업과 건축자재산업 등에서 동기간 동안 연평균 13%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FDI)가 베트남에 빠르게 유입되었고 베트남의 수출산업은 무역의존도가 2000년대에 90%를 상회할 정도로 ‘성장의 엔진’(engine of growth)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고용증가가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여 빠른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중국과 베트남은 동구유럽 및 구소련과 달리 공산당 중심의 정치체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 고용확대, FDI 유입확대 및 도시화의 진전을 획기적으로 이루었다. 이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구소련과 동구유럽과 달리 중국과 베트남은 어떻게 해서 공산당 관료지배체제인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부문 중심의 개혁개방체제를 실시하였는가? 둘째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의 특징과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무엇인가? 셋째 경제적 성과 중 양국의 고용증

7) 베트남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1979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경제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신경제 정책(1980-1982)’을 채택하였다. 신경제정책이 힘입어 베트남 경제는 어느 정도 호전되었지만 신경제정책의 실시에 따른 정부통제의 완화, 자유시장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통제가격 인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국유기업의 가격인상과 베트남 동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고율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켰다. Curry & Robert(1996)참조.

8) 도이모이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공업육성정책에서 농업과 경공업으로 전환, 둘째 수출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셋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넷째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다섯째 소유형태의 다양화, 국유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대 등이다. 오인식(2004) pp 7-8

9) ADB Statistics Database System, www.adb.org

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전환경제로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구조를 파악하여 앞으로 아시아경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국기업이 이 지역에 진출할 때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방법

중국은 1978년 이른바‘등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정책’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었다. 이 두 국가는 구 소련과 동구유럽과 달리 공산당이 개혁개방정책을 주도하였고 대외개방과 경제체제개혁과 거의 동시에 추진되면서 상호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었다. 즉 개혁이 개방을 촉진하고, 개방이 개혁을 확대시키면서 이들 국가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구소련과 동구유럽과 다른 개혁개방 방식을 선택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문제와 이런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고용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다음 두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이론적 연구분석 방법이다. 앞서 제시된 것처럼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부문 중심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은 구소련과 동구유럽과 달리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경제적 원리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개혁개방정책이 어떻게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는가? 특히 경제성장과 관련된 연구는 무수히 많다.¹⁰⁾ 그러나 여기서는 대외개방정책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수출촉진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어떤 경로로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한다. 즉 A. Smith와 Myint(1958)의 ‘잉여분출설(theory of vent for surplus)’과 Lewis의 모형을 통해서 해외직접투자 유입, 수출, 고용증가와 경제

10) Fu, Xiaolan(2004), ch.2 참조.

성장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둘째 실증적 연구분석 방법이다. 앞에서 제시된 잉여분출설과 루이스모형이 갖는 경제적 함의를 바탕으로 Cobb-Douglas생산함수를 이용한 추정모형을 설정한다. 이 추정모형은 고용을 종속변수로 하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변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추정모형을 바탕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고용 결정요인분석을 회귀분석방식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그래서 어떤 요인이 중국과 베트남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고용결정요인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절 연구구성

본 논문의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기존문헌연구를 통해서 무역과 고용간의 관계, 수출촉진전략과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연관관계를 규명한다.

제3장에서는 사회주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전환과정에서 구소련 및 동구유럽과 중국 및 베트남의 차이점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를 무역, FDI 현황 및 정책에서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를 무역, FDI 현황 및 정책에서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FDI, 수출이 고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모색과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고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시도한다.

제7장에서는 이것을 요약하여 결론을 맺는다.

제2장 기존문헌 연구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물자부족에 시달렸고 항시 과도한 투자를 시도하여 자원을 낭비하였다. Kornai (1986)는 사회주의 경제의 ‘연성 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¹¹⁾ 때문에 지적하였다. 즉 국영기업은 투자를 실패해도 중앙정부가 지원으로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투자를 시행한다. 또한 가격신호기능을 무시하고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혁신 동기도 약해진다. 다만 지원주체인 상급 기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로비행위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개혁개방정책은 결국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연성예산제약을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예산제약을 경성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대부분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참여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FDI를 적극적으로 유입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무역과 경제적 성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한다. 이와 관련된 문헌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 가지 측면-무역과 경제발전, 수출촉진전략과 무역과 고용구조-에서 정리한다.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1. 수출주도 경제발전의 전제조건

많은 국가들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국가들이 경제발전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대외개방정책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들은

11)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는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을 다 쓰더라도 외부로부터 추가로 예산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된다.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출이 반드시 경제발전을 이끌어낸다고는 보지 않는다. Kindleberger(1962)는 수출이 자본축적, 기술변화, 자원재분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때만이 경제발전에 주요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효과에 의한 외부경제효과와 지식확산효과가 특정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고 수출부문은 고립된다. 경제는 수출부문과 비수출부문이 분리되는 이중경제구조 하에서 수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출이 경제발전의 주요요인으로 작동하려면 일정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

첫째 Hirshman(1958)은 실효성있는 연관효과(linkage effect)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수출부문의 학습효과, 지식과 외부경제효과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어 산업 전체의 규모의 이익과 신기술개발 등이 창출되어야 한다. Meier(1995)는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과 반제품을 활용하는 제조품 수출증가는 전방연관효과(forward linkage effect)를 통해 부품관련 공급산업의 확장에 강한 추진력을 제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부분 개도국은 일정한 수출촉진지역(export promotion zones: EPZs)¹²⁾을 설치하여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수입반제품 및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여 수출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수출촉진지역의 확산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Caves(1971)는 수출부문의 생산기술은 타 부문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수출부문의 기술이 다른 부문과 차별성이 없다면, 기술진보 없이 수출부문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부문으로 이전되는 지식확산효과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즉 비숙련노동을 사용하는 분야보다는 숙련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출부문에서 유용한 연관효과를 견인해야 한다. 수출부문의 기술필요량은 교육을 통해 얻는 인적자본형성에 더 큰 유인을 제공한다. 더욱이 수

12) Balasubramanyan(1988)은 현지경제에서 EPZs로 이동한 노동력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0이면 수출촉진지역의 확립으로 이 경제가 얻는 이익은 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경제의 산업구조가 수출촉진지역으로부터 기술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때 경제발전에 유효할 수 있다.

출부문의 실무교육은 노동력이동을 통해 다른 부문으로 전달될 수 있다.

셋째 총산출량에서 제조품 수출비중이 높고 실질적인 증가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¹³⁾ 1차산품 수출은 비수출부문에 대한 외부경제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무역상대국의 산업구조와 발전수준이 수출의 성장 산업구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⁴⁾ 쌍무무역패턴이 기술리더국과 이루어질 때의 성장 산업구더 커질 수 있다. R&D의출이 실질적인 경우 범국업구간 기술확산효과는 전 산업업구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섯째 수출부문의 성장으로 다른 부문 및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노동력 이동은 생산성향상을 가져와야 한다.¹⁵⁾ 만약 수출부문 성장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생산성향상이 일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고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노동력 유입산업 및 지역의 사회적 편익이 노동유출산업 및 지역의 사회적 비용보다 오히려 적을 수가 있다. 무역관련 문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지만 인구이동과 경제발전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다.

여섯째 무역자유화의 시점과 순서가 중요하다.¹⁶⁾ 어떤 국가도 처음부터 자유 무역에 가까울 정도로 개방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최소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유화정도를 높여간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무역자유화는 수입쿼타제 철폐, 관세인하, 환율자유화 그리고 자본시장 자유화순서로 진행되길 권고한다. 이러한 순서에 의한 무역자유화는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자유화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달메커니즘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Wei(1996)는 FDI가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① 투자국 대외투자의 전체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자본수출에 대한 법적

13) Fosu(1996)

14) Keller (2000)

15) Krugman (1991),

16) Falvey and Kim(1992)

규제와 유인) ② 상대국의 FDI 매력도에 관계되는 변수(규모, 발전수준, 인적자본의 수준 등과 우대책 등 제도적 조치) ③ 양국의 특정적 요인(쌍무협정, 민족적·언어적·역사적 관계) 등을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2.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지금까지 무역과 경제발전에 관한 기존문헌을 검토한 결과 수출이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 잉여분출에 의한 생산능력
- (2) 자원 재분배의 특화
- (3) 시장확대
- (4) 고용기회 확대
- (5) 저축증가와 자본축적
- (6) 수입품의 결제대금
- (7) FDI 견인
- (8) 규모의 경제
- (9) 기술이전과 지식확산
- (10) 경제와 효율성 제고
- (11) R&D제고
- (12) 품질향상



이러한 요인들이 고용증가, 생산량 증가, 생산성증가, 소득분배, 산업구조변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 같은 5개의 발전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달메카니즘이 확실하고 효과적이며 다양할 때 무역이익은 실질적이다. 이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는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5개의 발전경로들 간에도 상호연관관계를 갖는다. 즉 수출에 통해 고용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량 증가가 다시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생산성증가는 생산량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소득분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생산량증가를 가져오고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산업화 및 도시화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개도국의 장기 경제발전은 수출이 얼마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표 2-1. 수출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달경로

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분출에 의한 생산능력 - 시장확대 - 고용기회확대 	① 고용증가	경 제 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분출에 의한 생산능력 - 시장확대 결제대금 - 고용기회확대 - 저축증가와 자본축적 - 수입품의 결제대금 - FDI 견인 	② 생산량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재분배의 효율성 - 수입품의 결제대금 - FDI 견인 - 규모의 경제 - 기술이전과 지식확산 - 경제와 효율성 제고 - R&D제고 - 품질향상 	③ 생산성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재분배의 효율성 	④ 소득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재분배의 효율성 	⑤ 구조조정, 산업화 및 도시화	

제2절 수출촉진전략

자유무역은 정태적 이익과 동태적 이익을 통해서 ‘경제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금융시장의 미발달, 자본과 기술의 부족과 사회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도국에서 무역은 정태적 이익과 동태적 이익을 충분히 시현(revealed)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출촉진정책을 사용하여 무역이 가지는 잠재적 이익을 실질적 이익으로 시현하려 한다.¹⁷⁾

그러면 수출촉진전략의 어떤 요인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 첫째 Keesing(1967)은 수출촉진전략을 실시하면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해야 하므로 기술개발과 비용절감에 노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국내기업에게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수입대체전략은 기업들이 차단된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생산성증가,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수출촉진전략에서는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Krueger(1978)는 수출촉진전략 하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그것이 비록 수입대체단계에 있더라도 장차 국제시장에서 판매를 예상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나 수입대체전략은 보호된 국내시장의 이윤가능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이 건설될 수밖에 없다.

셋째 수출촉진전략에서는 새로운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를

17) 대부분 국가들은 초기에 유치산업의 생산품에 대해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시장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보조금을 통해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했다. 그 후 자국의 상품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게 됨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쿼터를 철폐하는 무역자유화, 외환시장에서 정부개입을 철폐하는 환율자유화 그리고 자본시장 자유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밟으면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면서 자유무역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촉진전략은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무역이익을 통해서 얻는 실질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외부경제효과를 이끌어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

연계 되고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Keesing(1967)은 수입대체에 의한 지나친 보호가 인적자원의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강조하였다. 관세당국에서 외환을 통제하고 수입권을 배분하여 보조금을 지불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정부관리들은 부패와 뇌물수수의 교묘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경영자들은 정치적 연계관계에 더 신경을 씀으로써 기술습득이나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에 소홀히 함으로써 경제전반에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촉진전략은 경쟁압력으로 학습효과와 선진기술의 습득을 유인하고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수출촉진비용은 수입대체비용보다 정책수립자에게 쉽게 인식된다. Bhagwati-Krueger(1973)는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수출촉진비용은 정부예산을 통해 보조금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되면 수출촉진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대체비용은 기업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지나친 수입대체전략을 추구할 때 견제할만한 압력단체들이 형성될 수 없다. 둘째 수출촉진전략 하에서는 기업의 생산물이 국제시장에서 판매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통제하기가 어렵다. 즉 정부의 시장개입비용이 수입대체전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개입이 억제되고 경쟁이 유지된다. 셋째 정부규제는 수출촉진전략 하에서는 기업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수입대체전략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제거하거나 강화시킴으로써 이윤가능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기업가는 이윤이 정부관리의 결정에 의존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지나친 개입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수출촉진전략은 수입대체전략보다는 경제적 성과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도국 중에서 한국,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이러한 수출촉진전략을 추진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가 중국, 인도, 러시아와 베트남 등 전환경제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을 중요시 한 것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무역과 고용

무역과 고용에 관한 것은 가장 전통적인 무역이론인 헉셔-올린이론(theory of Heckscher-Ohl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어 노동집약재를 수출하는 경향이 있다. 무역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재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저렴한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노동집약재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면 이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농업부문에서 제조업부문으로 실질적인 노동이동이 발생한다.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으로의 노동이동은 총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노동집약재산업에서의 빠른 노동흡수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기업이 자본축적을 통해 생산방법을 상대적으로 싼 자본집약재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게 한다. 이에 따라 수출상품은 이제 좀 더 자본집약재상품화로 되고 한 단계 더 높은 비교우위사다리(comparative advantage ladder)로 이동하게 한다. 이때 수출상품구조는 노동집약재에서 자본집약재로 변화하게 된다. 즉 수출은 요소 대체와 상품구조변화에 기반을 두는 다른 형태의 산업구조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¹⁸⁾ 그 결과 수출증가는 점진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어진다. 한국이 좋은 실례를 제공한다. 한국에서 경제발전은 노동집약재 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60년 후반까지 노동집약재산업에서 노동흡수는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1970년 중반 노동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임금상승으로 한국기업은 산업구조를 자본집약재로 변화시켰다.¹⁹⁾

Lewis(1954)는 개도국의 이중경제구조-도시지역의 제조업과 농촌지역의 1차 산업-하에서 제조업 투자 증가는 도시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증가를 가져와 농촌지역의 위장실업²⁰⁾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한계생산물이 0인 농촌지역이 노동한계생산물이 양(+)인 도시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18) Krueger(1995)

19) Frank et al(1975)

20) 농촌지역에서 농번기에는 생산에 참여하나 농한기에는 참여하지 않는 노동을 말한다. 즉 평균생산물은 양이나 한계생산물은 0여서 경제적 의미에서 실업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총생산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투자 증가가 FDI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Myint(1958)는 Adam Smith의 무역의 동태이익에 주목하여 잉여분출설(vent for surplus)을 주장하였다. 즉 무역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확대되고 시장이 확대되면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잉여자원이 생산에 사용되면서 생산량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노동이 잉여상태로 존재한다. 무역은 이런 잉여노동을 고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4절 소 결

무역은 일정한 전제조건만을 충족하면 고용증가, 생산량증가, 생산성증가, 소득분배, 산업구조조정과 산업화 및 도시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수출촉진전략은 국제시장의 경쟁과 정보획득의 용이성, 기술이전 등 외부경제효과의 활용으로 수입대체전략보다 더 유효하다. 이런 수출촉진전략의 유효성을 활용하여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런 경제적 경험은 동아시아지역의 전환경제국인 중국, 인도와 베트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3장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

사회주의 경제권은 1980년대 전후로 대부분 중앙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 장에서는 왜 이런 전환과정을 모색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1절 사회주의 경제 특징과 문제점

Kornai(1992)는 시장경제와 다르게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²¹⁾

첫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당에 의한 국가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이런 토대위에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통제 또한 강하게 유지하였다. 공산당의 공식적인 이념은 항시 국가소유지배구조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국유재산권의 확보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국유재산권과 관료체제 간의 문제이다. 국가소유가 최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을 책임지는 관료에 의해 모든 것이 관리될 것이다. 실질적인 국유재산의 소유자는 관료들이며 이들은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사이에 일사분란한 수직적 명령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셋째, 관료지배체제에 따른 연성예산제약문제, 공급부족,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등이다. Kornai는 '연성예산제약'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동유럽 경제체제의 만성적인 물자부족 현상을 설명하였다. 현실 사회주의 기업들의 경우 예산제약 조건들이 '사후'에 협상을 통해 정부로부터 적자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제약이 엄격하게 작용하지 못했다. 이런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한 경제 행태

21) Kornai(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of Communis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Ch.6

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형상을 Kornai는 연성예산제약 증후(soft budget constraints syndrome)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전형적인 연성 예산제약 증후는 기업들이 사후 조정을 기대하고 생산요소 수요를 과도하게 늘리고 가격 신호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일부 산업의 과도한 생산요소 사용은 다른 산업의 생산요소의 부족을 유발하고 산업 전체적으로 생산 비효율성을 가져오면서 만성적인 생산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투자에 실패해도 지원기대에 따른 투자위험의 감소로 인한 과도한 투자성향이 발생하게 된다. 연성예산 제약 하에 놓여 있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혁신을 추진하려는 동기가 약해지고 지원주체인 상급 정부기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로비행위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과 문제점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은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혁정책이 요구되었다. 즉 정치적 측면에서 개혁과 경제적 측면에서 개혁이다. 이 개혁을 실시하는데 구소련 및 동구유럽 형태와 중국 및 베트남의 형태가 달라진다.

제2절 중국과 베트남 전환이론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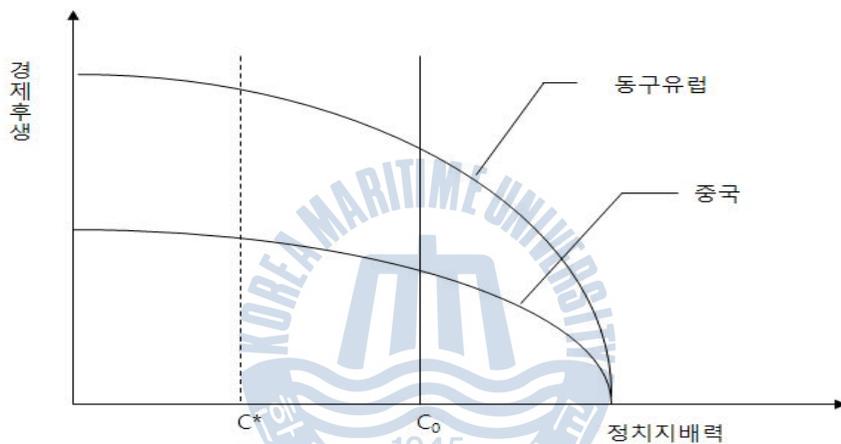
구소련과 동구유럽(동구유럽그룹)은 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과 베트남(중국그룹)은 공산당정부 지배의 정치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적 개혁을 진행하는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 Li & Wang(2009)은 중국과 베트남이 이런 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초기조건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은 구소련과 동구유럽과 달리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가권력을 획득했다. 둘째 중국과 베트남 정

22) Li & Wang(2009) Ch.12

부는 구소련과 동구유럽에 비해 상당히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초기조건을 바탕으로 구소련 및 동구유럽과 다르게 중국과 베트남은 강력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경제부문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경제적 모형을 제시한다.²³⁾

그림 3-1. 생산가능곡선 : 정치지배력과 경제 후생



정치지배력과 사회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자원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정치지배력과 사회후생 간에는 상충관계 (trade-off)가 존재한다. 즉 정치지배력을 높이려면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는 파레토 효율 상태가 존재한다. 이런 상충관계에서 정치지배력의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정치지배력과 사회후생 간의 생산가능곡선은 <그림 3-1>에서 보듯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이 정치지배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C^*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자. 만약에 $C < C^*$ 가 되면 공산당권력은 붕괴되고 정치지

23) Li & Wang(2009), p235

배력은 0이 된다. 그래서 공산당의 정치지배력에 대한 선택의 폭은 0 아니면 (C^*, \bar{C}) 사이의 어느 한 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bar{C} 는 그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치지배력을 의미한다. 모든 자원이 정치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여 되므로 국민을 위해 사용될 자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후생은 0이 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공산당 정치지배에 대해 실질적으로 저항할 때 지불비용을 R 이라 하자. 일반 국민이 혁명을 통해 급격한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R 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용 R 과 정치개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이룩했을 때 사회후생(정치지배력이 0이었을 때 사회후생)을 u^m ,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회후생수준을 u^* 라 할 때, 정치개혁편익은 두 사회후생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 즉 $\Delta u = u^m - u^*$ 이다. 이제 정치개혁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다면 ($R > \Delta u$) 정치개혁을 요구하지 않고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드릴 것이고, 정치개혁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R < \Delta u$) 정치개혁을 요구하여 공산당의 정치지배력을 무력화 시킬 것이다.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 3-1>에서 중국과 동구유럽국가들 모두 초기 정치지배력이 C_0 수준이라 하자. 정치지배력은 공산당 입장에서는 최적상태가 아니다. 초기조건에서 구소련과 동구유럽 일반대중들이 중국과 베트남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고 더 부유하기 때문에 동일한 정치지배력 하에서 더 높은 사회후생수준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정치지배력을 늘리는데 그 만큼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든다. 즉 구소련과 동구유럽 기회비용이 중국과 베트남 기회비용보다 정치지배력을 한 단위 더 늘리는데 기회비용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C_0 에서 구소련과 동구유럽의 생산가할비율 상의 기울기가 중국과 베트남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조건에 의해서 정치지배력이 0일 때 구소련과 동구유럽의 사회후생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림 3-1>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은 중국

과 베트남 것보다 더 확장되어 그려진다.

의사결정주체로서 선호가 다른 정부와 일반국민을 상정한다. 정부는 자신의 정치지배력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데도 관심을 두지만 국민의 사회후생도 도외시 할 수 없다. 즉 정부 정치지배력과 사회후생을 선호한다. 이에 비해 일반 국민은 자신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정부의 정치지배력을 선호하지 않지만 사회후생은 선호한다. 정부는 정치지배력과 사회후생을 모두 재화(goods)로 받아드리지만 일반대중은 정치지배력은 ‘비재화’(bads)로, 사회후생은 재화로 받아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틀에서 두 의사결정 주체인 공산당과 일반 국민은 생산가능곡선 외에 다음 두 가지 제약조건을 더 부가해서 정부지배력(C)과 사회후생(w)을 선택변수로 하는 목적함수를 최대화할 것이다. 제약조건으로 첫째 C 는 0이거나 (C^*, \bar{C}) 범위 안에 존재해야 한다. 둘째 공산당이 정부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얻은 편익이 비용보다 적어야 한다. 즉 $\Delta u = u^m - u^* < R$ 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ext{Max } U(C,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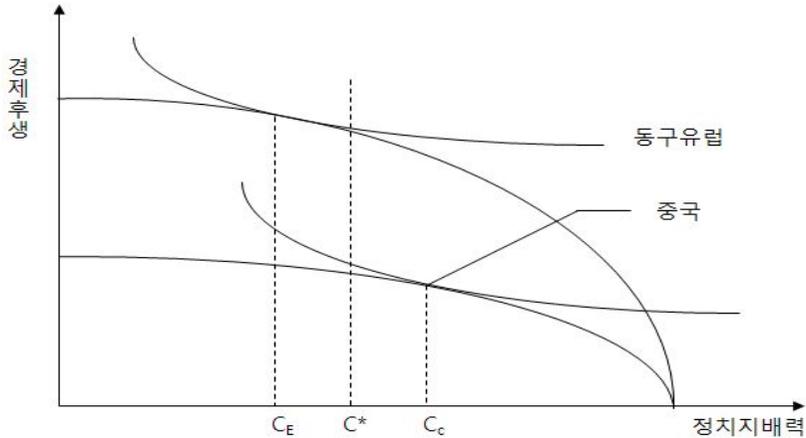
$$\text{s.t. } C = 0 \text{ or } C \geq C^*, \quad \Delta u = u^m - u^* < R$$

$$(C, w) \in PPF$$

이 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C, w) \in PPF$ 는 앞서 설명한 생산가능곡선을 나타낸다. 효용함수 $U(C, w)$ 는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낸다. 정부에게 정치지배력과 사회후생은 모두 재화이기 때문에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한다.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고 가정하면²⁴⁾ <그림 3-2>에서 보듯이 원점에 볼록한 형태인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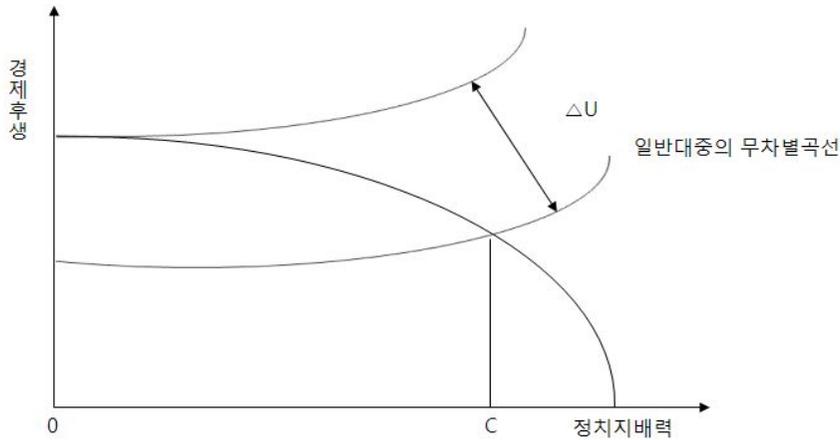
24) 정부가 정치지배력을 향유하면 할수록 사회후생의 평가한 정치지배력의 가치는 점점 작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림 3-2. 정부의 의사결정



먼저 단순화를 위해 동구유럽과 중국, 두 그룹의 정부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하자. 그러면 정부는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치지배력 창출에 따른 기회비용과 정치지배력의 향유에 따른 한계대체율이 일치하는 선에서 결정한다. 동일한 점에서 동구유럽그룹의 정치지배력의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생산가능곡선만 제약조건으로 하여 정부가 최적화한다면 <그림 3-2>에서 보듯이 중국그룹은 $C > C^*$ 인 어떤 점을, 동구유럽그룹은 $C < C^*$ 인 어떤 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C < C^*$ 일 때 $C=0$ 인 제약조건을 부가하면 동구유럽그룹의 공산당 정부지배력은 $C=0$ 가 되고 중국그룹은 $C > C^*$ 인 C_e 점에서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즉 동구유럽그룹은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할 때 정치개혁을 선택하였고 이에 비해 중국그룹은 정치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 일반 국민의 의사결정



일반 국민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면 정치지배력(C)은 비재화로, 사회후생은 재화를 받아드리기 때문에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한 형태로 그려진다. 정치지배력을 정부가 1단위 향유할 때 일반대중이 느끼는 고통이 체증한다면 <그림 3-3>에서 보듯이 원점에서 블록하게 된다. 동일한 정부지배력 양국에서 유지된다면 초기조건에 의해서 동구유럽그룹 일반국민이 느끼는 고통이 중국그룹보다 더 크다. 이에 따라 동구유럽 그룹의 국민들은 정부 정치지배력을 중국그룹보다 덜 받아드릴 것이다. 즉 동구유럽그룹의 정치지배력은 $C_E < C^*$ 로 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중국그룹의 정치지배력은 $C_C > C^*$ 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제약조건에 의해서 동구유럽그룹 정부의 정치지배력은 0이 될 것이고, 중국그룹 정부는 일정한 정치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부의 최적점과 일반 국민의 최적점이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동구유럽그룹은 정치개혁을 포함한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었다. 반면 중국그룹은 공산당이 정치지배력을 유지하는 점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주의국가가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일부 국민들의 저항은 있었지만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중대한 유혈사태나 폭력사태없이 진행되었다.²⁵⁾ 이것은 앞의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제4장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제1절 중국의 경제현황²⁶⁾

1. 중국의 경제성장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1978년 중국 공산당은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중국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표 4-1>에서 보듯이 절대적 규모면에서 1980년 중국의 GDP는 브라질의 1.35배, 인도의 1.66배의 경제규모였다. 초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09년 현재 중국은 1980년과 비교해서 15.3배가 증가하였고 타 BRICs국가와 비교하면 브라질의 3.1배, 인도의 3.9배, 러시아의 3.9배 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기간 동안 중국이 얼마나 빠른 경제성장을 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4-1. BRICs의 국내총생산(GDP)

(단위 : 10억달러)

연도 국가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브라질	227.6	478.6	644.7	882.0	1,089.4	1,334.1	1,595.5	1,530.6
중 국	306.5	404.5	1,192.8	2,302.7	2,779.9	3,460.3	4,327.0	4,699.9
인 도	184.8	326.8	467.8	813.3	911.4	1,142.3	1,253.9	1,231.8
러시아	-	-	259.7	764.6	989.4	1,294.4	1,076.6	1,241.5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中國統計年監 各年度

25) 진행과정에서 구소련의 쿠데타가 발생하였지만 큰 유혈사태없이 정치개혁이 진행되었다. 반면 중국은 천안문 사태라는 유혈사태를 겪었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는 정부주도의 개혁개방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개방과정에서 만연된 부패, 이중가격제도의 불합리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26) 유일선(2011), 중국경제의 고용결정요인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경제성장률을 보아도 중국이 얼마나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표 4-2>에서 BRICs국가들이 개방경제를 추구하던 1991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경제성장률을 보면 중국만이 10.0%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BRICs 각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

연도 국가	199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브라질	2.5	5.7	3.2	4.0	6.1	5.1	-0.2	7.6
중 국	10.0	10.1	10.4	11.6	13.0	9.6	8.7	10.0
인 도	5.8	8.3	9.3	9.4	9.6	5.1	6.6	7.9
러시아	-	7.2	6.4	7.7	8.1	5.6	-7.9	4.3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표 4-3. 동아시아 경제의 현황

(단위 : 달러, %)

구 분	1인당 국민소득 (1999)	GDP 연평균성장률		개방도		
		1980-90	1990-99	1990	1997	
일 본	32,230	4.0	1.4	20.7	21.7	
중 국	780	10.1	10.7	26.9	41.5	
NICS	한 국	8,490	9.4	5.7	60.1	77.0
	대 만	-	7.9	6.3	88.4	95.7
	싱가폴	29,610	6.7	8.0	386.4	311.9
	홍 콩	23,520	6.9	3.9	260.1	264.2
ASEAN	인도네시아	580	6.1	4.7	49.9	56.2
	태 국	1,960	7.6	4.7	75.8	93.4
	말레이시아	3,400	5.3	6.3	150.6	188.3
	필리핀	1,020	1.0	3.2	60.8	108.4
	베트남	370	4.6	8.1	59.8	100.3
세 계	4,890	3.2	2.5	31.5	36.2*	

자료 : 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주 : * 1998년 전세계 수출입액을 99년 전세계 GDP로 나눈 값임.

지난 반 세기동안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는 어떤 지역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우선 일본의 급속한 성장에 이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신흥공업국의 성장이 뒤를 이었고, 최근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경제권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부터 20년 동안의 동아시아 경제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연평균 성장률과 개방도(무역량/GDP)를 <표 4-3>에 정리하였다. 일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일본, 싱가포르, 홍콩은 소득수준이 매우 높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 등 신흥공업국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이 혼재되어 있다.

표 4-4. 개도국의 경제성장률 비교(1960-2010)

(단위 : %)

지역/국가	1960 1965	1965 1970	1970 1975	1975 1980	1980 1985	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2006 2010
아프리카	5.4	4.9	4.4	3.8	2.2	2.6	1.1	3.4	3.9	4.5
남 미	4.6	5.8	6.6	5.1	0.5	1.8	3.6	2.8	1.5	4.7
동아시아	5.0	7.5	6.8	7.6	7.1	8.2	8.8	4.9	6.2	8.7
중 국	2.1	5.3	5.1	6.1	11.0	7.8	12.9	8.5	9.4	11.2
남아시아	4.5	4.9	2.3	3.6	5.3	5.9	5.0	5.3	5.7	7.2
인디아	4.2	4.9	2.4	3.0	5.3	6.6	5.3	5.8	6.1	8.6
개도국	4.8	6.0	6.4	5.1	2.9	4.3	5.4	4.1	4.4	6.1

자료 :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06, p46, 2012 p2.

주 : GDP는 1995년 기준년도 불변가격으로 계산함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들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업국(NICS) 4개국은 80년 이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ASEAN 국가들도 1980-90 기간 동안의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1980년 이후 세계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특히 중국은 1980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표 4-4>는 개도국들 중 1980년 이후 2010년 까지 중국이 얼마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개도국 평균 경제성장률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2. 중국의 무역현황

<표 4-3>을 보면 동아시아 국가의 개방도는 매우 높다. 개방도는 GDP에 대한 무역액(수출+수입)의 비율이며, 이 값이 높을수록 대외거래가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나타낸다. 동아시아 국가의 개방도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평균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는 개방도가 100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 경제가 무역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가를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중국통계연감에 의하면 개혁개방초기인 1980년 개방도가 10.1%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 현재 70.5%에 이르고 있다.

<표 4-5>는 BRICs 국가들의 수출입을 비교한 것이다. 중국은 1980년에 180억불에 불과하던 수출액이 2009년 현재 1조 2천억으로 무려 30년 동안 70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입액도 50배정도 증가하였다. 다른 BRICs 국가들도 동 기간 동안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중국에 못 미쳤다. 즉 브라질은 30년 동안 수출은 7배정도, 수입은 5배정도, 인도는 수출이 20배정도, 수입은 16배정도로 중국의 무역활동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빨리 확대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4-6>은 BRICs 각국의 수출입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1980-2000년간 20년 동안 수출평균증가율은 14.7%, 수입평균증가율은 13.0%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중국은 수출입 모두 2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급격한 수출입증가를 보이고 있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와 좋은 비교가 되고 있다.

표 4-5. BRICs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단위 : 10억달러)

국가 \ 연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브라질	수출	20.13	31.41	55.12	118.53	137.81	160.65	197.94	153.00
	수입	24.96	22.52	58.64	77.63	95.84	126.58	182.36	133.55
중국	수출	18.10	62.09	249.20	761.95	969.38	1,217.79	1,428.66	1,201.79
	수입	19.94	53.35	225.09	659.95	791.61	958.25	1,131.62	1,004.17
인도	수출	8.59	17.97	42.38	99.62	121.80	149.95	194.53	162.62
	수입	14.86	23.58	51.52	142.84	178.47	228.69	320.79	249.59
러시아	수출	-	-	105.59	243.80	303.93	354.40	471.77	303.39
	수입	-	-	49.13	137.98	181.16	245.84	321.17	210.98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표 4-6. BRICs 각국의 수출입의 증가율

(단위 : %)

국가 \ 연도		80-90	80-00	90-00	00-05	05-08	05-09	05	06	07	08	09
브라질	수출	5.1	5.4	5.9	17.1	18.4	9.1	22.6	16.3	16.6	23.2	-22.7
	수입	-1.9	7.2	12.6	5.3	32.8	18.9	16.9	23.5	32.1	44.1	-26.8
중국	수출	12.8	14.7	14.5	26.7	23.5	13.9	28.4	27.2	25.8	17.3	-15.9
	수입	13.5	13.0	13.0	26.5	19.8	12.7	17.6	19.9	20.8	18.3	-11.3
인도	수출	7.3	9.4	9.5	19.2	24.8	15.6	30.0	22.3	23.1	29.7	-16.4
	수입	4.2	6.9	10.1	23.5	30.7	18.6	43.2	24.9	28.1	40.3	-22.2
러시아	수출	-	-	-	19.3	23.8	9.2	33.1	24.7	16.6	33.1	-35.7
	수입	-	-	-	22.7	32.8	15.3	28.8	31.3	35.7	30.8	-34.3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표 4-7>은 세계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BRICs 4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은 개방 직후인 1980년 세계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0.9%이고, 수입비중이 0.96%정도 1%미만의 수출입비중을 차지하였다. 2009년 현재 수출비중이 9.68%로 10배 수준, 수입비중이 7.98%로 8배 수준의 놀라운 증가를 가져왔다. 이것은 다른 BRICs국가들이 1-2%정도의 수출입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동 기간 동안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무역확대가 얼마나 빠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표 4-7. 세계 총수출입에서 BRICs 각국의 비중

(단위 : %)

연도 국가		80	85	90	95	00	04	05	06	07	08	09
		수출	0.99	1.30	0.90	0.90	0.86	1.05	1.13	1.138	1.15	1.23
수입	1.20	0.70	0.63	1.03	0.88	0.70	0.72	0.774	0.89	1.11	1.06	
중국	수출	0.90	1.39	1.78	2.87	3.87	6.46	7.25	7.993	8.71	8.87	9.68
	수입	0.96	2.08	1.48	2.52	3.38	5.93	6.12	6.397	6.71	6.88	7.98
인도	수출	0.42	0.46	0.52	0.59	0.66	0.83	0.95	1.004	1.07	1.21	1.31
	수입	0.72	0.78	0.66	0.66	0.77	1.05	1.324	1.44	1.61	1.95	1.98
러시아	수출	-	-	-	1.60	1.64	1.99	2.321	2.51	2.53	2.93	2.44
	수입	-	-	-	1.31	0.74	1.13	1.278	1.46	1.73	1.95	1.68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표 4-8>은 세계 주요 국가와 주요 지역의 수출입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을 제외하고 세계 전체평균, 개도국 전체 평균 및 기타 다른 지역보다 수출입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보다 더 높은 수출입 증가율을 보여 이 지역 무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8. 세계 주요국가 및 지역의 수출입 변화

(단위 : %)

지역 /국가	수출									수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계	6.1	11.2	6.3	8.9	5.5	2.4	-13.1	13.9	5.9	7.1	11.7	7.4	8.2	6.4	2.5	-13.4	14.1	5.0
선진국	3.4	8.5	5.4	8.3	3.7	2.5	-15.2	13.2	5.1	5.2	9.0	6.1	7.1	3.6	-0.2	-14.5	11.0	3.5
일본	9.2	13.4	5.1	11.8	6.8	2.3	-24.9	27.5	-0.4	5.9	6.3	2.0	4.3	0.8	-0.6	-12.4	10.1	1.9
미국	2.9	8.7	7.4	10.5	6.8	5.5	-14.9	15.3	7.2	5.5	10.8	5.6	5.7	0.8	-3.7	-16.4	14.8	3.8
EU	3.5	8.6	5.6	8.6	2.9	2.4	-14.3	12.0	6.0	5.5	8.5	6.6	8.8	4.5	0.8	-14.2	10.0	3.2
전환경제	7.9	11.7	-0.2	5.4	7.1	-0.2	-14.4	11.5	6.0	17.6	8.7	12.4	21.1	26.4	15.5	-28.6	15.5	17.0
CIS	7.2	11.2	-0.4	4.8	6.5	-2.6	-11.4	13.3	2.3	17.9	19.2	15.2	23.5	26.9	22.0	-32.5	18.2	19.1
개도국	11.8	16.8	9.2	10.5	8.3	3.2	-9.7	15.4	7.0	11.1	17.5	9.9	9.4	10.4	6.6	-9.9	19.2	6.2
아프리카	3.7	7.6	4.2	0.8	6.9	-3.1	-9.7	8.7	-5.1	5.5	12.5	13.0	9.6	10.0	10.6	-3.9	7.1	3.9
남미	3.8	9.5	6.3	5.7	2.3	-0.3	-11.0	10.3	3.4	0.7	13.6	10.5	13.3	11.7	8.5	-17.9	23.3	7.1
동아시아	21.1	23.4	17.8	18.5	15.1	7.3	-10.6	23.8	9.9	18.4	18.8	6.6	10.3	10.4	0.4	-5.3	25.0	7.5
중국	33.4	31.7	26.9	25.4	21.9	10.6	-13.9	29.0	12.8	32.9	24.6	8.4	13.2	14.2	2.3	-1.8	30.8	10.6
남아시아	8.9	11.1	9.3	7.9	7.1	6.8	-6.0	6.0	9.1	13.4	15.9	16.7	8.4	8.0	20.9	-5.6	13.9	4.1
인도	11.1	18.2	16.1	10.2	12.8	16.8	-6.6	5.9	13.7	17.1	18.6	22.2	7.8	12.2	29.7	-0.8	13.8	5.3

자료 : UNCTAD(2006),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p181

3.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

(1) 개혁 이전 무역체제

현대 중국의 대외무역체제는 외국무역과 관련된 조직형태, 관리권한, 경영분업 및 이익분배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 이러한 중국무역정책의 내용은 그동안 개혁을 통해 변화했다. 그것은 곧 무역체제 성격의 변화하였음을 뜻한다. 개혁 전후에 달라진 중국 무역체제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표 4-9>와 같다.

현대 중국의 개혁 이전 대외무역체제는 옛 소련의 중앙집권적 소비에트형 체제였다.²⁷⁾ 중국의 대외무역체제는 개혁이 상당히 이루어진 1990년까지도 소비에트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무역의 정의는“중국공산당 영도 아래 공유제의 기초 위에서 노동인민의 이익을 모색하는 사회주의 성질의 국가독점무역”이었다.²⁸⁾

표 4-9. 개혁 전후 중국의 무역체제 비교

구분	개혁 이전	개혁 이후
조직형태	국가 독점적 국영무역	기업의 자율적 무역조직 인정
관리권한	중앙집권적 통일관리	지방 분권적 범위 확대
경영분업	생산과 판매의 분리	생산과 판매의 통합 촉진
이익분배	노동인민의 이익 우선 분배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분배 인정

중국 초기의 대외무역은 내용적으로 국내상업과 구분되지 않았다. 관리조직은 중앙정부의 무역부 산하 국영 대외무역회사들이 수출입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였다. 그 후에 무역부는 대외무역부와 산업부로 분리되고, 종전의 국영 대외무역회사는 무역상품의 종류에 따라 15개의 “외무전문진출구총공사”(外貿專業進出口總公司), 즉 대외무역전문업종별 수출입회사로 재편되었다.²⁹⁾ 이 회사들은 국가계획에 따라 일괄적으로 외국상사들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품을 수출하였다.³⁰⁾

27) 소비에트 무역체제란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고 국가계획에 의해 무역이 관리되는 국가독점무역체제를 말한다.

28) 오용석(1990)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나남출판사) p.58

29) 이 당시 중국무역은 대부분 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무역은 매년 정부간 협상을 통하여 물물교환의 형식이었다. 그 때문에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은 사회주의권의 역내무역을 보충하는 정도에 그쳤다.

30) 당시 동서진영간의 첨예한 이념대립의 갈등구조 아래서 중국과 서방국가들 간의 무역은 순탄하지 않았다. 더욱이 친콰(Chincom)과 코콰(Cocom)에 의해 서방국가들의 공산권과 중국에 대한 수출품목은 엄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무역은 경제논리보다는 중앙집권적 행정관리 아래서 이루어졌다. 그 당시 중국의 대외무역체제는 국가정책의 통일성, 계획의 일사불란성, 대외관계의 이념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2) 1980년대의 개혁

중국은 1970년대 부분적 무역체제개혁의 실험과정을 거쳐 1980년대는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 중국의 무역체제개혁은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86년에 중국이 GATT 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체제 개혁은 더욱 가속화하였다. 1980년대 중국무역체제 개혁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제도 개편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은 1980년대의 국제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대외무역확대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1979년에 국무원에 수출입관리위원회와 외국투자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무역과 경제업무를 맡는 정부부처는 이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연락부와 국가외자관리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외경제무역기구들의 난립은 의사결정권 분산, 정책집행 혼란, 업무중복으로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 그래서 1982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모든 대외무역관련 기구들은“대외무역경제부”로 통합되었다.

그 이후의 무역체제개혁은 대외경제무역부와 국무원이 주도하였다. 대외경제무역부는 1984년 9월 15일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대외무역체제개혁 의견보고”³¹⁾를 발표하였다. 국무원은 대외경제무역부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무역체제 개혁의 원칙과 목표를 결정하였다. 그것은 198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3기 전국대표대회에 보고되어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었다.³²⁾ 1980년대 중국 무역체제의 제도적 개혁을 포괄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격히 통제되었다. 중국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함께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압력에 대항하여 무역을 외교적 투쟁과 연계시켰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무역에 경제적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31) 李志寧 (1987)“中華人民共和國經濟大事典”(長春 吉林人民出版社) p.624

종합하여 요약정리하면 <표 4-10>과 같다.

표 4-10. 중국의 1980년대 무역체제개혁의 주요내용

개혁내용	목표	구체적 개혁 조치
정기분개(政企分開)	정부와 기업의 기능분리로 대외무역의 행정관리 강화	정부와 기업의 직책분리와 대외무역부 전문 국에 의한 무역기업의 관리
간정부방권(簡政放權) 방개경영(放開經營)	정부의 무역관리권 이양과 경영확대로 무역기업경영의 적극성 유도	모든 경제부처에 무역회사 또는 대외청부공정회사 설립 및 경영권 부여
추행대리제	대외무역경영대리제의 실시로 무역회사의 대외무역경영관리 개선	수출입대리제와 전면적인 수입경영대리제 실시
공무결합 기무결합 진출구결합	공업과 무역, 기술과 무역 및 수출입의 결합으로 계획의 간소화와 무역업무의 효율성 제고	생산 및 기술개발 회사에 무역 기능 확대
자부영휴	손익의 자기책임원칙의 대외무역 재무체제 개혁으로 경제조정 수단의 강화	무역경영기업 독립채산제 실시

자료: 오용석(2004) p.246

(3) 1990년대의 개혁

1990년대 이후 중국 무역체제개혁의 기본 목표와 방향은 이러한 경제체제의 범주 안에서 설정되었다. 이때의 무역체제는 국가의 계획과 통제를 받아야 하

32) 王紹熙 (1990)“中國對外貿易理論和政策”(北京 中國經濟貿易出版社) p.58

는 준국가독점무역의 형태였다. 1990년대 개혁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경영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무역체제 개혁은 중국의 WTO 가입의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시장의 경제원리를 전제로 추진되었다.³³⁾ 정책의 방향은 중국의 대외무역발전을 위한 5개 원칙으로 발표되었다. 그것은 첫째 대외개방지역의 확대, 둘째 대외무역관리제도개혁의 심화, 셋째 외국인투자 유치 부문의 확대와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 넷째 새로운 국제시장의 개천과 모든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 다섯째 품질우선주의를 통한 수출상품 품질의 제고 등이다.

(4) WTO가입 후 무역체제개혁

중국의 WTO 가입 후 무역체제개혁은 WTO규범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2조(무역제도의 실시)가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WTO협정에 속하거나 WTO협정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일관성 유지, 둘째 국내 여러 지역과 특수경제구간의 횡적 차별이 나 중앙과 지방간의 종적 차별이 없는 일관성 있고 공장하며 합리적 관리체제, 셋째 법규와 제도상의 투명성, 넷째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경제정책의 비공개성과 불투명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³⁴⁾

33) 1990년대 중국무역체제개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확정한 것은 1992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였다.

34) 중국의 중요한 정책전달체계는 계획경제체제의 관행으로 남아 있는 ‘홍두문건’으로 불리는 내부문서였다. 이것을 통해 주요 정책에 관한 지령과 조치가 하달되고 국무원 각부 장관들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 이런 업무처리 관행에서 무역에 관한 정책의 공개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 뿐만 아니라 WTO 가입 이전 중국의 법체제도 중앙과 지방에 따라 제각기 달라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표 4-11. 중국의 WTO 가입 전후의 무역체제 비교

구분	WTO가입 이전		WTO 가입 이후	
	1979년-1992년-2001년		2002년-2005년-2015년	
무역체제의 특성	국가독점무역	준국가독점 무역	준보호주의적 무역체제	준자유 및 공정무역체제
계획과 시장관계	계획 주, 시장 종	시장 주, 계획 종	준시장경제	시장경제
가격체제	국정가격제	다중가격제	준시장가격	시장가격
정책결정 기관	공산당·국무원	국무원·공산당	국무원	국무원
정책의 투명성	불투명 (내부문건)	불투명성 약화	투명성 증가	비교적 투명
무역행위의 주체	국영기업	국유·비국유 기업 (허가제)	국유·비국유기업 (신고제)	경쟁에 의해 결정
무역기업 경영체제	1기업 1업종 경영	청부경영책임제	업종중심 경영	서구식 경영체제
거래의 지배원리	인치무의	법제화 추진	법치주의 강조	점진적 법치주의로 이행
외자기업 무역권	불허	조건부 허가	생산범위내 허가	허용
서비스부문	미개방	외국인에게 제한적 업무허용	부분적 개방	대부분 개방

자료 : 오용석(2004)“중국 무역체제개혁의 전개와 방향: WTO 가입 전후의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비교경제연구 제 9권 제 2호 p.278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WTO 가입 3개월 후부터 공포되는 모든 법규와 조치를 공개하였다.³⁵⁾ 공포된 법규와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

인, 기업 또는 WTO 구성원이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제공되고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4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내국민대우와 WTO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법규와 조치는 모두 폐지되거나 정지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법규들은 중앙정부의 직권으로 정비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의의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민간무역의 확대로 무역체제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사라지는 본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유제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대부분 국유기업이 중심이 되어 국영무역을 시행하고 있었다. 중국의 무역체제에서 사유부문인 민간무역의 확대되면 이념 지향적에서 경제 지향적으로 방향이 이동하는 탈 이데올로기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민간무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TO 자유무역체제에서 민간무역에 대한 사회주의 방식의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국영무역도 WTO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회주의적 통제메커니즘의 작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GATT 제 17조 규정에 의하여 WTO체제 아래서 국영무역은 비교적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도 국유기업의 모든 무역정보를 공개하고 추가적인 행정규제와 수출가격 통제를 할 수 없다. 중국의 국영무역상품 중 밀, 옥수수, 쌀, 보리, 면화, 콩기름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무역통제는 2005년까지 폐지되고 그 대신 민간부문 무역권이 허용된다.

WTO가입협상에서 합의된 일정표에 의하면, 2002~2005년은 중국의 무역체제가 연차적으로 WTO체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기간이다. 2005년 이후 중국의 무역체제는 완전히 세계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중국의 WTO가입 후의 무역체제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졌다. <표 4-11>은 중국의 WTO 가입 전후의 무역체제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35)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2002 (북경 중국물자출판사) p.104, p.235, p249

제2절 중국의 FDI 유입 현황

1. 중국 FDI의 현황

<표 4-12>은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유입 해외직접투자부분에서 중국의 경우 1980년대는 6,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 현재 1,057억불에 이르고 있다. 30년 동안 거의 1,700배에 가까운 증가가 발생한 것이다. 중국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유인책과 더불어 중국의 거대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은 미국 다음의 세계2위의 유입국이며 그 액수가 세계 전체의 8%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유출 FDI를 보면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가들이 높다. 이들 국가의 FDI의 상당부분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에 이르면 중국은 한편에서는 FDI를 유입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³⁶⁾ 2010년에는 그 규모가 680억 달러로 미국, 독일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등장하고 있다.³⁷⁾

198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는 199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시장에서 외국기업, 중국국영기업과 중국 민간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중국기업들은 다른 시장과 첨단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은 선진국 기업과 M & A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다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진국 시장에 직접투자 형식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다.³⁸⁾

36) 중국은 유입 해외직접투자를 引來進으로, 유출 해외직접투자를 走出去라고 표현하고 있다.

37) 중국의 유출FDI는 2000년 중후반에 급격하게 증가한다. 2006년 212억 달러, 2007년 225억 달러, 2008년 522억 달러, 2009년 565억 달러이다.

38) 이근 외(2005) 참조

표 4-12.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1970-2010)

(단위 : 10억불)

	유출 FDI					유입 FDI				
	1970	1980	1990	2000	2010	1970	1980	1990	2000	2010
전세계	14.1	53.7	242.0	1186.8	1323.3	13.0	55.0	208.6	1388.0	1243.6
프랑스	0.4	3.1	36.2	177.4	84.1	0.6	3.2	15.6	43.2	33.9
독일	1.1	4.7	24.2	56.6	104.8	0.8	0.3	2.9	198.3	46.1
영국	1.8	7.9	17.9	233.4	11.0	1.5	10.1	30.5	118.8	45.9
캐나다	0.9	4.1	5.2	44.7	38.6	1.8	5.8	7.6	66.8	23.4
미국	7.6	19.2	31.0	142.6	328.9	1.2	16.9	48.4	314.0	228.2
일본	0.4	2.4	48.0	31.6	56.3	0.9	0.3	1.6	8.3	1.2
중국	-	-	0.8	0.9	68.0	-	0.06	3.5	40.7	105.7

자료: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1

<표 4-13>는 중국의 GDP, 무역총액과 유입 FDI 총액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되면서 무역총액과 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1990년부터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에 대만, 홍콩 및 동남아 화상(華商)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국정부의 개방정책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된 서구선진국이 중국에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표 4-13. 중국 GDP, 무역총액과 FDI

년대	GDP(억불)	경제성장(%)	무역총액(억불)	FDI(억불)
1979년	2,167	7.0	292.6	-
1980년	2,423	6.9	380.4	-
1981년	2,276	3.0	431.3	-
1982년	2,244	7.4	408.0	-
1983년	2,365	9.0	435.3	9.2
1984년	2,357	12.0	516.0	14.2
1985년	2,649	12.5	696.2	19.6
1986년	2,717	7.8	738.0	22.4
1987년	2,934	9.4	827.0	23.1
1988년	3,722	11.2	1,027.9	31.9
1989년	4,164	3.9	1,116.0	33.9
1990년	3,073	5.0	1,154.1	34.9
1991년	3,678	7.0	1,357.0	43.7
1992년	4,341	12.8	1,656.0	110.1
1993년	5,446	13.4	1,958.0	275.2
1994년	5,082	11.8	2,367.0	337.7
1995년	6,613	10.2	2,809.0	375.2
1996년	8,154	9.7	2,899.0	417.2
1997년	9,020	8.8	3,251.0	452.6
1998년	9,609	7.8	3,240.0	454.6
1999년	9,912	7.1	3,607.0	403.2
2000년	10,800	8.0	4,743.0	407.2
2001년	11,590	7.3	5,098.0	468.8
2002년	12,371	8.0	6,208.0	527.4
2003년	14,099	9.1	8,512.0	535.1
2004년	16,494	9.5	11,548.0	606.3
2005년	22,248	9.9	14,221.0	603.3
2006년	25,073	12.7	22,555.4	630.2
2007년	28,633	14.2	26,678.4	747.7
2008년	31,382	9.6	28,787.4	924.0
2009년	34,238	9.1	24,103.7	900.3

자료: 中國統計年監 各年度

<표 4-14>는 국가별 중국의 유입 해외직접투자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도 대 중국 투자진출국 중 실제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홍콩이 189.9억 달러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 버지니아 67.3억 달러, 한국이 62.5억 달러, 일본이 54.5억 달러, 미국이 39.4억 달러로 순서대로이다. 2001년 투자실적을 2004년과 비교할 때 미국 대만의 실행액은 48.6억불에서 39.4억불, 31.6억불에서 31.1억불로 낮아졌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외환위기 기간 동안 투자가 감소하다가 2001년 이후로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국가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실행액기준, 단위 : 억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홍콩	건 수	7,976	10,845	13,633	14,719
	계약액	206.0	827.7	407.2	501.4
	실행액	168.6	527.4	177.0	190.0
일본	건 수	2,003	2,745	3,245	3,454
	계약액	53.5	53.0	80.0	91.6
	실행액	45.8	41.9	50.4	54.5
미국	건 수	2,594	3,363	4,060	3,925
	계약액	75.1	81.6	101.6	121.7
	실행액	48.6	54.2	42.0	39.4
한국	건 수	2,933	4,008	4,920	5,625
	계약액	35.1	52.8	91.8	139.1
	실행액	19.7	27.7	44.9	62.5
버지니아	건 수	1,500	1,959	13,633	2,641
	계약액	87.6	126.5	122.6	193.9
	실행액	50.5	61.2	67.7	67.3

자료 : 중국상무부 www.mofcom.gov.cn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FDI를 선전 등 경제특구³⁹⁾를 중심으로 FDI를 받아드리기 시작했다. <표 4-13>에서 보듯이 1983년부터 1989년 천안문사태가 발생하던 해까지 FDI유입비율은 GDP의 1%를 넘지 못하였다. 1990년 초 등소평의 남순강화이후 FDI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90년대 GDP 대비 평균 5%대를 유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FDI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90년 후반으로 가면서 경제성장이 FDI유입비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액 규모에서는 계속 상승하여 2008년에는 천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표 4-15>는 다른 BRICs 국가들과 FDI 유출입을 비교한 것이다. 중국의 FDI유입은 브라질, 인도보다는 2000년 이후 절대액 면에서 1.5배-2.5배 정도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도 다른 BRICs 국가들에 비해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중국이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수출주도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도국과 전환경제국(transition economy)인 BRICs 국가 가운데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뚜렷이 차별화된 높은 경제성장률, 높은 무역증가율과 무역의존도, 그리고 FDI의 유입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39) 덩샤오핑의 대외개방정책의 소산으로 1979년 광둥성(廣東省)의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푸젠성(福建省)의 샤먼(廈門) 4개 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1980년 8월 광둥 성 경제특별구역조례를 공포하고 경제특별구역을 건립할 것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1988년에는 하이난 섬(海南島)이 성(省)으로 격상되어 5번째 경제특구가 되었다. 외국의 자본이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100% 외자 기업 인허가, 수출입 관세 면제, 기업이나 개인의 국외송금 자유, 소득세에 대한 3년 거치 등의 특혜가 있다. 또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1984년에 14개의 연해 항만도시가 경제개발특구로 지정되었다. 경제특구를 지정한 뒤 10여 년 동안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표 4-15. BRICs 각국의 FDI의 유입과 유출

(단위 : 백만달러)

국가	연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브라질	유입	1,910	989	32,779	15,066	18,822	34,585	45,058
	유출	367	625	2,282	2,517	28,202	7,067	20,407	-10,084
중국	유입	57	3,487	40,715	72,408	72,715	83,521	108,312	95,000
	유출	-	830	916	12,260	21,160	22,469	52,150	48,000
인도	유입	79	237	3,588	7,622	20,328	25,001	40,418	34,613
	유출	4	6	514	2,985	14,285	17,233	18,499	14,897
러시아	유입	-	-	2,714	12,886	29,701	55,073	75,461	38,722
	유출	-	-	3,177	12,767	23,151	45,918	56,091	46,057

자료: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1992년에 중국국영기업은 공산품생산의 약 절반을 담당하였지만, 수출확대에는 미미한 기여를 했을 뿐이다. 또한 중국이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다른 점은 대규모의 외국직접투자(FD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출과 유입 해외직접투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것이 경제성장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중국의 FDI정책 변화

(1)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정책

외국인투자는 대외차관과 달리 외채의 원금상환 및 금리부담이 없고 오히려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 가운데서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고용확대효과와 기술이전효과가 크고 선진경영기업의 도입을 수반한다. 이것은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대한 효과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이 대외개방정책을 결정하자 국무원이 서둘러 1979년 7월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공포한 것도 그러한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이 법은 중국과 외국의 공동투자에 의한 기업설립과 경영을 규정하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법이다. 그러나 국내의 사정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곧바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2)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정책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는 여전히 문제가 적지 않았다. 특히 1985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수지균형의무가 강화되고 투자업종과 투자기간이 제한되었다. 비싼 토지사용료와 임금에 관한 규제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다양하지 못한 외국인직접투자 방식도 외자의 중국유입을 막았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1986년에 외국인직접투자의 계약은 급격히 줄었다. 국무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1986년에 “중외합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 의무가 완화되었다. 또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도 투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고쳐졌다. “외국인투자장려 규정”이 만들어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강화되는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다양화도 이루어졌다. 1986년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 공포되어 이른바 “3자기업”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1990년대에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제도를 정비하였다. 1990년 4월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이사장 취임이 가능해지고, 기업자산의 무상몰수제도와 합자

기간의 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 5월에는 토지 관련법규의 제정으로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유상양도와 외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부동산개발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12월에 “외자기업법 시행조례” 공포로 중국은 독자기업의 적극적 유치 의지를 보였다. 그 동안 고용효과나 기술이전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독자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통일도 이루어졌다.“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에 의해 1991년 7월1일부터 3자기업의 소득세율과 감면제도가 통일되었다. 그리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제도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을 납부하고 면세, 공제 및 환급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의 중심이 외자유치에서 세수확보로 옮겨진 것을 뜻한다. 1995년부터 실시된 부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리도 괄목할만하다. 국무원은 지방정부에 부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하였다.⁴⁰⁾

(3) WTO 가입 전후의 정책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2000년 10월 31일 “외자기업법”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3자기업 관련법을 잇달아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기업에 요구되던 외환수지균형과 중국산 원자재의 우선조달이 폐지되고, 선진기술·설비이용 및 수출의 의무는 장려로 바뀌었으며, 등록자본의 감소금지는 허가사항이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새로운 기업제도의 도입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다. 중국이 서비스시장 개방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1986

40) 중국에서 부실기업은 “3무기업”으로 불린다. 3무기업이란 첫째, 자본금이 불입되지 않은 기업; 둘째, 회사설립등기를 마치고도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 셋째,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한 기간 안에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년에 GATT 가입을 신청한 후 옵서버 자격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 참가하면서부터이다. 그 때 중국은 GATT가입을 전제로 하여 UR 서비스협상 대상 155개 분야 중 46개 분야를 개방한다는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UR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 유통 및 문화·오락·스포츠 분야의 개방이 추가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 전에는 서비스부문의 중·외 합작이나 합자투자 대상 선정은 반드시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교육은 전 분야에 걸쳐 개방되었고, 전문서비스업은 회계와 변호사업을 제외한 세무·건축공정·도시설계·의료·부동산업의 합자투자와 외국인 지배주주권 보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취약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지배주주권 단독투자는 대부분 제한적이고 연차적으로 허용되었다.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건축공정과 세무서비스의 외국인 단독투자는 각기 2004년과 2007년 이후 가능하다. TV, 오디오, 영화관, 문화 분야와 교통·운수 분야의 외국인 지분은 49%로 한정되었다. 통신서비스와 국가관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소매업은 2005년부터 개방되고 외국은행의 중국 내 인민폐 업무는 2006년 이후에 지방별로 완전 개방되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생명보험업과 여행사의 자격조건은 비교적 까다롭다.

제3절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

<표 4-16>은 1978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주요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당시 고용인구가 4억이었지만 2009년 현재 7억8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매년 평균 1,000만 이상의 고용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6. 중국의 GDP, 무역, 고용인구, 임금의 변화

연도	고용인구 (백만)	1인당 (달러)	무역액 (억달러)	수출액 (억달러)	수입액 (억달러)	GDP (억달러)	무역/GDP (%)	평균임금 (yuan)
1978	401.5	212	206.4	97.5	108.9	2044	10.1	615
1979	413.1	223	293.3	136.6	156.7	2167	13.5	668
1980	423.6	247	381.4	181.2	200.2	2423	15.7	762
1981	437.4	228	440.2	220.1	220.2	2276	18.9	772
1982	450.1	221	416.1	223.2	192.0	2244	18.2	798
1983	463.1	231	436.2	222.3	213.9	2365	18.4	826
1984	476.1	228	535.5	261.4	274.1	2357	21.9	974
1985	498.7	253	696.0	273.5	422.5	2649	26.3	1148
1986	512.8	256	738.5	309.4	429.0	2717	28.3	1329
1987	527.8	272	826.5	394.4	432.2	2934	28.2	1459
1988	543.3	340	1027.8	475.2	552.7	3722	27.6	1747
1989	553.3	374	1116.8	525.4	591.4	4164	26.8	1935
1990	647.5	269	1154.4	620.9	533.5	3073	37.6	2140
1991	654.9	318	1357.0	719.1	637.9	3678	36.9	2340
1992	661.5	370	1655.3	849.4	805.9	4341	38.2	2711
1993	668.1	460	1957.0	917.4	1039.6	5446	35.9	3371
1994	674.6	424	2366.2	1210.1	1156.2	5082	46.6	4538
1995	680.7	571	2808.6	1487.8	1320.8	6913	40.6	5348
1996	689.5	666	2898.8	1510.5	1388.3	8154	35.6	5980
1997	698.2	730	3251.6	1827.9	1423.7	9020	36.0	6444
1998	706.4	770	3239.2	1837.6	1401.7	9609	33.7	7446
1999	713.9	787	3607.0	1949.0	1658.0	9912	36.4	8319
2000	720.9	853	4743.0	2490.0	2353.0	10800	43.9	9333
2001	730.3	909	5098.0	2667.0	2431.0	11590	44.0	10834
2002	737.4	963	6208.0	3256.0	2752.0	12371	50.2	12373
2003	744.3	1,091	8512.0	4385.0	4127.0	14099	60.4	13969
2004	752.0	1,269	11548.0	5936.0	5612.0	16494	70.0	15920
2005	758.3	1,701	14221.0	7623.0	6598.0	22248	63.9	18200
2006	764.0	2,640	22555.4	9689.4	7914.6	25073	89.6	20856
2007	769.9	3,227	26678.4	12177.8	9559.5	28633	93.3	24721
2008	774.8	3,793	28787.4	14306.9	11325.6	31382	92.0	28898
2009	780.0	4,092	24103.7	12016.1	10059.2	34238	70.5	32244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년도, 중국통계국 사이트(www.stats.gov.cn)

표 4-17. 중국의 도시화 진전

단위:만명

연 도	1952	1978	1985	1990	1996	2003
인 구	57,482	96,259	105,851	114,333	122,389	129,277
농촌인구	50,319	79,014	80,757	84,142	86,437	76,851
도시인구	7,163	17,245	25,094	30,191	35,950	52,376
도시화	12.5	17.9	23.7	26.4	29.4	40.5

자료: 이근 외(2005)중국의 기간산업경제, p121

개혁개방 초기에는 1,000만 명 이상 고용이 증가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1,000만 명 이하로 고용이 증가한다. 또한 임금도 개혁개방 이후 10%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금은 처음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고용인구증가가 임금 상승보다 빠르고 1990년 후반부터 고용인구증가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지면서 임금상승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잉여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촌의 잉여노동력에 대한 통계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표4-17>은 잉여노동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정부가 호구제와 배급제를 사용하여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을 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가 2003년에 40%를 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농촌인구는 1996년 8억6천만명을 정점으로 하고 그 이후 점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시지역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농촌지역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농촌에 잉여노동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18. 중국의 이주문제와 유량인구

연 도	2003		1996		1990		1982	
	비 율	인 구	비 율	인 구	비 율	인 구	비 율	인 구
전 체	100.0	1,260.5	100.0	1,246.2	100.0	1,130.5	100.0	1,004.0
등록인구	91.1	1,148.4	94.6	1,178.4	97.4	1,100.8	98.9	992.6
유량인구	8.9	112.4	4.8	60.0	1.9	21.4	0.7	66
1년이상거주, 타지역등록	7.7	97.3	4.5	56.1	1.8	19.8	0.6	6.4
등록지떠나 1년이상거주인구	0.7	8.6	0.3	3.9	0.1	1.6	0.02	0.2
과도인구	0.5	6.3	0.6	7.8	0.7	8.1	0.5	4.7
해외거주인구			0.02	0.2	0.01	0.1		
인민해방군						3.2		4.2

자료: 이근 외(2005) 중국의 기간산업경제 p133

그러면 중국에는 얼마만큼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할까? 현실적으로 이주민들이 합법적인 호구제도에 의해 도시지역에서의 거주를 공식적으로 허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영주권없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들을 중국통계에서는 '유량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표4-18>에서 보듯이 1990년의 전체 유량인구는 2,140만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1981년의 840만 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근거한다면 1900년 현재 도시인구의 약 2%가 호구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현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1%를 밑돌던 1982년도 구성비율보다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불과 6년 사이에 유량인구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들어 유량인구는 더욱 급증하였다. 1996년과 2003년의 유량인구가 추정치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랑인구는 1996년 6,000만 명, 2003년 1억 1,220만 명으로 10여년 사이에 유랑인구 비율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최소한 농촌부문에서 1억 1,220만 명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풍부한 잉여노동력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FDI가 유입되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4절 소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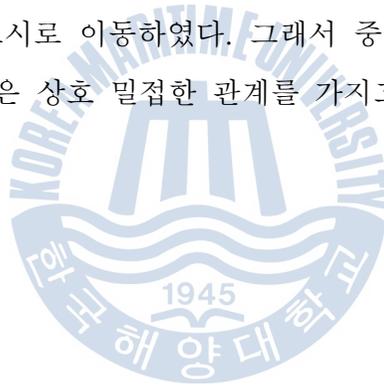
2009년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량(GDP)은 3조 4천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었다. 1인당 GDP 역시 1978년 212달러이던 것이 2009년 현재 4,100달러로 30년 동안 20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의 대외무역은 1978년에는 206억 달러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2조 4천억 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하여 가히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1978년 무역의존도가 10%정도였으나 2009년 현재 70.5%로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무역이 활성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대규모의 대외무역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해 저자들 사이에 논란은 있지만⁴¹⁾ 중국의 성장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방정책과 수출 증가에 의해 뒷받침된 제조업의 성장 덕분이라는 설명에는 이론이 없다. 즉 중국은 개방정책을 통해 비교우위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고,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수출의 확대를 통해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그 동안 급속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지고 어느 정

41) 실증분석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수출증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무역과 성장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Jung and Marshall(1985)의 연구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Chow(1987)는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출과 경제성장간에 상호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Lewis(1980)는 수출을 성장의 원동력(engine of growth)이라고 하였다. 나카가네 카츠지(1999) 중국경제발전론 참조

도 입증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부분 수출공산품이 외자기업에 의해서 생산되었고 또한 외국기업과 밀접한 유대를 맺고 있는 중국 기업에 의해서 생산되었다. 그리고 간접투자이든 직접투자이든 대부분은 향진기업이거나 비국영기업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1992년과 1993년에 중국의 생산량 중 10%를 점유하지 못한 외자기업이, 수출확대에 있어서는 약 3분의 2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92년에 중국국영기업은 공산품생산의 약 절반을 담당하였지만, 수출확대에는 미미한 기여를 했을 뿐이다. 또한 중국이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다른 점은 대규모의 외국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고용이 이루어졌고 또한 농촌지역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출, 유입 해외직접투자, 고용과 경제성장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5장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제1절 베트남 경제 현황

1. 베트남의 경제성장

1980년대에 들어서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베트남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표 5-1>에서 보듯이 1991-1995년간 베트남의 GDP증가율은 평균 8%였고, 이는 1986-1990년간 평균증가율의 두 배에 해당하는 실적이었다. 이후 GDP 증가율은 1996년에 9.3%, 1997년에 8.2%로 증가하였으나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5.8%, 1999년에 4.8%로 하락하였다가, 2000년부터 다시 회복하여 2007년까지 7-8%를 유지하였다. 2008-2009년간은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5-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원인은 안정적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한 여타부문의 성장에 있었다. 베트남의 농업은 경제개혁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부문이다. 1인당 연간 식량생산량을 보면, 벼로 환산한 생산량은 1987년에 281kg이었으나, 1988-1989년에 349kg, 1990-1991년에 325kg, 1992년에 349kg이었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베트남은 1989년부터 쌀 수출국으로 전환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매년 200만톤 정도를 수출하였고 최근에는 600만톤 정도를 수출하여 세계 2위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공업부문은 1980년대에 매년 평균 약 7%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에 들어서 10%이상이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1999년에만 7-8%성장세를 나타내었고, 이후 회복되어 약 10%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2008-2009년간 세계적 경기침체로 5-6%의 성장률을 보였다.

표 5-1. 베트남의 GDP와 산업부문별 증가율(%)

연도	GDP	농림수산업	공업/건설	서비스
1986	2.8	3.0	10.9	-2.3
1987	3.6	-1.1	8.5	4.6
1988	6.0	3.7	5.0	8.8
1989	4.7	7.0	-2.6	7.9
1990	5.1	1.0	-2.6	7.9
1991	5.8	2.2	7.7	7.4
1992	8.7	6.9	12.8	7.6
1993	8.1	3.8	12.6	8.6
1994	8.8	3.4	13.4	9.6
1995	9.5	4.8	13.6	9.8
1996	9.3	4.4	14.5	8.8
1997	8.2	4.3	12.6	7.1
1998	5.8	3.5	8.3	5.1
1999	4.8	5.2	7.7	2.3
2000	6.8	4.6	10.1	5.3
2001	6.9	3.0	10.4	6.1
2002	7.1	4.2	9.5	6.5
2003	7.3	3.6	10.5	6.5
2004	7.8	4.4	10.2	7.3
2005	8.4	4.0	10.7	8.5
2006	8.2	3.7	10.4	8.3
2007	8.5	3.8	10.2	8.9
2008	6.3	4.7	6.0	7.4
2009	5.3	1.8	5.5	6.6

자료 : GSO 2004, CIEM 2005, 2009, GSO, 2010

서비스부문은 1990년 이래 7% 전후의 성장률을 나타내었고, 1998-2000년 간 2-5%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근래에는 6-8%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2007년까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2>에서 보듯이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고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농업국가임을 알 수 있다.

표 5-2. 산업부문별 GDP 비중(%)

연도	농림수산업	공업/건설	서비스
1986	38.1	28.9	33.1
1987	40.6	28.4	31.1
1988	46.3	24.0	29.7
1989	41.1	22.9	35.0
1990	38.7	22.7	38.6
1991	40.5	23.8	35.7
1992	33.9	27.3	38.8
1993	29.9	28.9	41.2
1994	27.4	28.9	43.7
1995	27.2	28.8	44.1
1996	27.8	29.7	42.5
1997	25.8	32.1	42.2
1998	25.8	32.5	41.7
1999	25.4	34.5	40.1
2000	24.5	36.7	38.7
2001	23.2	38.1	38.6
2002	23.0	38.5	38.5
2003	22.5	39.5	38.0
2004	21.8	40.2	38.0
2005	21.0	41.0	38.1
2006	20.4	41.5	38.2
2007	20.3	41.5	38.2
2008	22.2	39.8	38.0
2009	20.9	40.2	38.9

자료 : GSO 2004, CIEM 2005, 2009, GSO, 2010

베트남 경제의 특징을 같은 ASEAN회원국이면서 개방경제정책을 지향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태국 등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1986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5-3>에서 보듯이 절대적 규모면에서 1990년 베트남의 GDP는 다른 ASEAN 국가 중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의 0.5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2009년 현재 인도네시아 GDP보다 1.63배 만큼 더 커졌다. 동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는 5.4배, 말레이시아는 4.4배, 필리핀은 3.6배, 태국은 3.2배에 비해 베트남은 무려 16.1배 증가하였다. 이것은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 베트남이 얼마나 빠른 경제성장을 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⁴²⁾

표 5-3. ASEAN 5개국의 국내 총생산(GDP)

(단위 : 억달러)

연도 국가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인도네시아	110.9	196.9	144.8	266.8	370.2	419.5	452.2	597.2
말레이시아	44.1	89.0	93.8	137.5	156.5	186.6	221.8	193.1
필리핀	44.3	72.7	75.9	99.0	118.3	143.9	167.2	161.0
태국	85.3	168.1	122.7	176.4	207.1	247.1	272.5	271.7
베트남	60.5	207.3	303.9	529.3	609.3	710.0	911.8	972.9

자료 : ADB Statistics Database System, www.adb.org

주 : 해당년도의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달러로 환산

경제성장률을 보아도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4>에서 보듯이 다른 ASEAN국가와 비교해보면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중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5년 이후 베트남경제는 9%를 상회하는 고성장하는 국가가 되었다.

42) 유일선·송희준(2011) 참조

표 5-4. ASEAN 5개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

연도 국가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인도네시아	9.0	8.2	4.9	5.7	5.5	6.3	6.9	4.5
중국	10.0	10.1	10.4	11.6	13.0	9.6	8.7	10.0
말레이시아	9.0	9.8	8.9	5.4	5.8	6.5	4.7	-1.7
필리핀	3.0	4.7	4.4	5.0	5.3	7.1	3.7	1.1
태국	11.2	9.2	4.8	4.6	5.1	4.9	2.5	-2.3
베트남	5.1	9.8	6.8	8.4	8.3	10.8	9.3	3.7

자료 : ADB Statistics Database System, www.adb.org

2. 베트남의 무역현황

<표 5-5>에서 보듯이 베트남의 무역액은 1986년에 30억 달러에서 2000년에 300억 달러, 2009년에는 1,27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베트남 무역액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2009년 현재 40배 정도 증가하였다. 총 무역액은 2000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부터 수출입 모두 급속히 증가하였고, 경상수지 적자가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7년부터는 수출입간 격차가 더 벌어져, 경상수지 적자가 14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9년의 무역액은 수출액 570억 달러, 수입액 700억달러, 합계 1,270억 달러가 되었다. 2009년의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약 9% 감소하였고, 수입은 약 13%감소하였다. 개혁개방이후 베트남의 무역은 중국과 달리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5-5. 베트남의 대외 무역액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합계	수출	수입	경상수지
1986	2,944	789	2,155	-1,366
1987	3,309	854	2,455	-1,601
1988	3,795	1,038	2,757	-1,718
1989	4,512	1,946	2,566	-620
1990	5,156	2,404	2,752	-348
1991	4,425	2,087	2,338	-251
1992	5,121	2,581	2,541	40
1993	6,909	2,985	3,924	-939
1994	9,880	4,054	5,826	-1,772
1995	13,604	5,449	8,155	-2,706
1996	18,400	7,256	11,144	-3,888
1997	20,777	9,185	11,592	-2,407
1998	20,860	9,360	11,500	-2,139
1999	23,283	11,541	11,742	-201
2000	30,119	14,483	15,637	-1,154
2001	31,247	15,029	16,218	-1,189
2002	36,452	16,706	19,746	-3,040
2003	45,405	20,149	25,256	-5,107
2004	58,454	26,485	31,969	-5,484
2005	69,208	32,447	36,761	-4,314
2006	84,717	39,826	44,891	-5,065
2007	111,326	48,561	62,765	-14,203
2008	143,399	62,685	80,714	-18,029
2009	127,045	57,096	69,949	-12,853

주 : 2009년 통계는 추정치, 986-1993 루블화, 루블화와 달러 교환비율 1:1

자료 : GSO 2004, CIEM 2005, 2009, GSO, 2010

<표 5-6>에서 보듯이 1986년 개혁개방이후 베트남의 무역량은 2000년 초 거의 GDP수준에 육박하였으며 2005-6년에는 무역의존도(무역총액/GDP)가 100%에 이르렀다. 이것은 베트남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표 5-6. 베트남의 주요경제 지표

연도	고용인구 (백만)	1인당 (달러)	무역액 (억달러)	GDP (억달러)	무역/ GDP(%)	이자율	임금지수 (87=100)
1990	29.4	93.1	51.6	60.5	85.3	2.40	106.8
1995	33.0	113.7	136.0	207.3	65.6	0.50	109.1
2000	37.6	386.3	301.2	303.9	99.0	0.20	110.9
2005	42.8	642.2	526.1	529.3	99.4	3.00	112.6
2006	44.0	731.1	608.3	609.3	99.9	3.00	115.2
2007	45.2	843.2	888.7	710.0	125.2	3.06	116.3
2008	46.5	1,071.1	970.2	911.8	106.4	3.68	114.6
2009	47.7	1,129.7	870.1	972.9	89.4	1.85	111.6

자료 : ADB Statistics Database System, www.adb.org,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주 : 이자율은 정부가 고시한 1년 평균 저축이자율을 나타냄.

<표 5-7>은 ASEAN 5개국들의 수출입을 비교한 것이다. 베트남 개혁개방 이후인 1990년에 24억에 불과하던 수출액이 2009년 현재 558억불로 무려 20년 동안 23배 정도 증가하였고 수입액도 24배정도 증가하였다. 다른 ASEAN 국가들도 동 기간 동안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베트남만큼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즉 인도네시아는 20년 동안 수출은 5배정도, 수입은 4배 정도, 말레이시아는 수출이 5.2배 정도, 수입은 4.1배정도, 필리핀은 수출은 4.3배, 수입은 4.2배, 태국은 수출이 6.5배, 수입이 4.1배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에 비하면 베트남이 얼마나 수출입이 빠르게 증가하였는지 알 수 있다.

표 5-7. ASEAN 5개국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단위 : 10억달러)

연도 국가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인도네시아	수출	24.00	26.81	65.41	86.18	103.49	118.73
	수입	10.83	21.84	40.37	69.41	80.33	93.09	129.77	92.67
말레이시아	수출	12.95	29.45	98.23	140.87	160.57	176.03	209.67	157.48
	수입	10.78	29.26	81.96	114.41	131.08	146.77	164.41	123.69
필리핀	수출	5.7	8.11	39.78	39.88	47.42	50.27	49.21	38.31
	수입	8.29	13.00	37.03	46.96	54.08	57.71	60.49	45.74
태국	수출	6.51	23.07	68.96	110.18	130.80	153.12	172.86	152.07
	수입	9.21	33.05	61.92	118.16	128.72	140.80	178.77	134.83
베트남	수출	0.34	2.40	14.48	32.44	39.61	48.30	62.63	55.78
	수입	1.31	2.75	15.64	36.98	44.41	60.87	79.68	66.75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주 : 인도네시아 1980-2000년 자료에는 동티모르가 포함되어 있음

<표 5-8>은 ASEAN 각국의 수출입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1980-2000년 간 20년 동안 베트남의 수출평균증가율은 21.1%, 수입평균증가율은 13.6%로 동기간 동안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 중국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ASEAN국가와 비교해도 수출수입 증가율에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가 반영된 2009년 자료에서도 다른 ASEAN과 비교해도 수출입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베트남경제가 세계시장에서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Kissing(1967)이 지적하는 것처럼 시장경쟁력, 정보획득과 학습효과 등을 통해 개방경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세계시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³⁾

43) Kissing, D.B, "Outward-Looking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Economic Journal*, Jun 1967, pp303-319

표 5-8. ASEAN 5개국과 중국의 수출입의 증가율 변화

(단위 : %)

연도		80-90	80-00	90-00	00-05	05-08	05-09	05	06	07	08	09
인도네시아	수출	-1.1	6.3	8.5	-	19.2	10.6	20.1	20.1	14.7	22.4	-19.1
	수입	2.6	7.5	5.1	-	22.4	11.2	37.3	15.7	15.9	39.4	-28.6
중국	수출	12.8	14.7	14.5	26.7	23.5	13.9	28.4	27.2	25.8	17.3	-15.9
	수입	13.5	13.0	13.0	26.5	19.8	12.7	17.6	19.9	20.8	18.3	-11.3
말레이시아	수출	8.6	12.7	12.2	8.8	13.7	5.0	12.0	14.0	9.6	19.1	-24.9
	수입	7.7	12.9	9.5	8.2	12.8	3.9	8.7	14.8	12.0	12.0	-24.8
필리핀	수출	3.9	11.4	18.8	1.7	7.1	-0.4	0.5	18.9	6.0	-2.1	-22.1
	수입	2.9	10.5	12.5	5.4	8.6	0.6	10.9	15.2	6.7	4.8	-24.4
태국	수출	14.0	15.2	10.5	11.1	16.3	9.7	14.5	18.7	17.1	12.9	-12.0
	수입	12.7	12.9	5.0	14.2	14.2	6.1	25.2	8.9	9.4	27.0	-24.8
베트남	수출	18.9	21.0	22.7	18.4	24.3	16.7	22.5	22.1	22.0	29.7	-10.9
	수입	8.7	13.6	22.9	20.7	29.9	19.3	15.7	20.1	37.1	30.9	-16.2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주 : 인도네시아 1980-2000년 자료에는 동티모르가 포함되어 있음

<표 5-9>은 세계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베트남은 1980년, 1990년 세계에서 수출비중이 각각 0.02%, 0.04% 그리고 수입비중이 각각 0.06%, 0.09%로 너무 미미해서 다른 ASEAN 5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수출비중이 0.45%, 수입비중이 0.53%로 수출비중은 7.5배, 수입비중은 5배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필리핀의 수출입비중을 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이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경쟁에 불리한 많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연한 환율정책을 운영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⁴⁴⁾

표 5-9. 세계 총수출입에서 ASEAN 5개국의 비중

국가	연도	80	85	90	95	00	04	05	06	07	08	09
		인도네시아	수출	1.78	0.94	0.77	0.92	1.01	0.78	0.82	0.85	0.85
	수입	0.52	0.50	0.61	0.78	0.61	0.53	0.64	0.65	0.65	0.79	0.74
말레이시아	수출	0.64	0.78	0.85	1.43	1.52	1.34	1.34	1.32	1.26	1.30	1.27
	수입	0.52	0.60	0.81	1.48	1.23	1.11	1.06	1.06	1.03	1.00	0.98
필리핀	수출	0.28	0.23	0.23	0.34	0.62	0.43	0.38	0.39	0.36	0.31	0.31
	수입	0.40	0.27	0.36	0.54	0.56	0.45	0.44	0.44	0.41	0.37	0.36
태국	수출	0.32	0.36	0.66	1.09	1.07	1.05	1.05	1.08	1.10	1.07	1.22
	수입	0.44	0.45	0.92	1.35	0.93	1.00	1.10	1.04	0.99	1.09	1.07
베트남	수출	0.02	0.04	0.07	0.11	0.23	0.29	0.31	0.33	0.35	0.39	0.45
	수입	0.06	0.09	0.08	0.16	0.24	0.34	0.34	0.36	0.43	0.48	0.53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주 : 인도네시아 1980-2000년 자료에는 동티모르가 포함되어 있음

표 5-10.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0	170	733	5,924	7,845	10,105	11,869	11,853
일본		340	146	2,575	4,340	5,240	6,090	8,538	6,327
중국		8	362	1,536	3,228	3,243	3,646	4,536	4,040
호주		8	46	1,272	3,224	3,745	3,802	4,225	2,448
싱가폴		195	690	886	1,917	1,812	2,234	2,660	2,062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주 : 인도네시아 1980-2000년 자료에는 동티모르가 포함되어 있음

<표 5-10>과 <표 5-11>에서 보듯이 베트남의 무역상대국을 보면 2009년

44) Hill, H., "Export Success against the Odds: A Vietnamese Case Study". World Development, Vol.28, No2, 2000, pp 283-300

현재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조는 2005년 이후 형성되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상품은 원유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섬유 및 의류, 신발류, 수산물종류 순이다. 45)

표 5-11.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

(단위 : 백만달러)

연도 국가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중국	5	330	1,401	5,900	7,391	12,710	15,652	13,199
싱가폴	497	1,425	2,694	4,482	6,274	7,614	9,393	7,689
한국	53	1,254	1,754	3,594	3,908	5,340	7,066	6,241
일본	169	916	2,301	4,074	4,702	6,189	7,170	2,448
태국	17	440	811	2,374	3,034	3,744	4,906	5,133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주 : 인도네시아 1980-2000년 자료에는 동티모르가 포함되어 있음

이와 같은 베트남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은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의 환율이 적정선을 유지하며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베트남의 수출가공 지역(Export Processing Zone; EPZ)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셋째 베트남 정부가 외국투자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저임금과 결합하여 가격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하였다. 넷째 높은 수출성장을 지속하던 아시아 국가들이 노동집약재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함에 따라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46) 이러한 연구결과는 베트남경제에서 수출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준다.

45) 이성량.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수출과 경제성장”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2007, p388

46) 이성량(2007) p.841

3. 베트남의 정책 변화

베트남은 1970년대 말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자 경제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다가, 1986년 12월에 제 6차 당 대회에서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면서 전면적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개혁과정은 실제로 탈사회주의화 과정이지만, 공식적 견해로는 “베트남이 현재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중이다. ‘도이머이’는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혁명의 원칙과 전략을 견지하면서 이에 전술적 활력과 전술적 창조를 결합하는 것”이라는 한다.

도이머이정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주도의 경제관리구조를 배제하고 지방자치를 허용한다. 둘째, 인플레이를 억제하고자 베트남 경제정책을 시장지향성 경제체제로 바꾼다. 셋째, 세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실행한다. 넷째, 장기간에 걸쳐 토지사용권을 허용하는 농업정책을 실시하여, 생산품, 생산요소구매를 자유롭게 한다. 다섯째, 사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삼는다. 여섯째,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수출입을 허용하고 외국기업들의 국내시장에서 활동을 보장한다.⁴⁷⁾

베트남에서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머이’정책을 채택한 이후 소유구조는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 <표 5-12>을 보면, 국유경제 부문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에서 40%에서 1991년에 31%까지 감소하였다가, 199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1994-1998년 간에는 40% 수준을 회복하였다. 시장경제화 과정에 있는 베트남에서 국유부문의 증가 현상이 다소 역설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는 개혁 초기에 그간 비효율적이던 국영기업을 활성화 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베트

47) Ministry of Foreign Affair, <http://www.mofa.gov.vn>

남에 투자할 경우 주로 국영기업과 협력관계를 가져 활성화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후, 그 비중은 2004년 까지 39%로 약간 감소하였고, 2005년부터 감소폭이 커져 2009년에는 35%로 내려갔다.⁴⁸⁾

표 5-12. 소유형태별 GDP비중(%)

연도	국유기업	비국유기업	외국인투자
1986	39.7		60.3
1987	37.7		62.3
1988	33.7		66.4
1989	33.4		66.6
1990	31.8		68.2
1991	31.1		68.9
1992	34.3		65.7
1993	38.2		61.8
1994	40.1	53.5	6.4
1995	40.1	53.5	6.3
1996	39.9	52.7	7.4
1997	40.5	50.5	9.1
1998	40.0	50.0	10.0
1999	38.7	49.0	12.2
2000	38.5	48.2	13.3
2001	38.4	47.8	13.8
2002	38.4	47.9	13.8
2003	39.1	46.5	14.5
2004	39.1	45.8	15.1
2005	38.4	45.6	16.0
2006	37.4	45.6	17.0
2007	36.0	46.1	18.0
2008	35.5	46.0	18.4
2009	35.1	46.5	18.3

자료 : GSO 2004, CIEM 2005, 2009, GSO, 2010, 이한우(2011), p191 재인용

48) 이한우(2011),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제6장

표 5-13. 소유형태별 공업생산량(%)

연도	국유기업		비국유기업 합계				외국인투자
			집체	사유	가계	혼합	
1986	56.3	43.7	28.1	0.0	15.1	-	-
1987	55.9	44.0	27.0	0.0	16.4	-	-
1988	56.5	43.5	23.9	0.0	19.0	-	-
1989	54.3	43.1	15.8	0.1	26.4	-	0.3
1990	54.1	41.4	12.2	0.1	28.4	-	0.5
1991	55.8	31.5	4.8	1.4	25.2	-	12.7
1992	55.3	29.4	2.8	2.8	23.8	-	15.2
1993	56.4	28.2	2.1	4.0	22.1	-	15.4
1994	57.1	27.6	1.1	2.4	21.4	2.7	15.2
1995/ 1995*	57.3/ 50.3	28.2/ 24.6	0.8/ 0.6	2.4/ 2.2	20.7/ 17.6	4.3/ 4.2	14.8/ 25.1
1996	49.3	24.0	0.6	2.4	16.1	5.0	26.7
1997	48.0	23.1	0.6	2.4	14.7	5.5	28.9
1998	45.9	22.1	0.6	2.2	13.8	5.5	32.0
1999	43.4	21.9	0.6	2.2	13.0	6.1	34.7
2000/ 2000*	41.8/ 34.2	22.3/ 24.5	0.7/ 0.6	2.2/ 14.2	11.8/ 9.7	7.5/-	35.9/ 41.3
2001	31.5	27.0	0.5	16.3	10.2	-	41.5
2002	31.5	27.0	0.6	16.7	9.7	-	41.5
2003	29.4	27.5	0.4	18.4	8.7	-	43.1
2004	27.4	29.0	0.4	20.4	8.2	-	43.6
2005	25.1	31.2	0.4	22.7	8.1	-	43.7
2006	22.4	33.4	0.4	25.5	7.5	-	44.2
2007	20.0	35.4	0.3	27.7	7.4	-	44.6
2008	18.5	37.1	0.3	30.0	6.8	-	44.4

주 : 1986-1990년간은 1982년 가격기준, 1991-1995, 1989 가격기준,
1995-2000, 1994년 가격기준, 2000-2008년간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 GSO 2004, CIEM 2005, 2009, GSO, 2010

비국유부문은 1986년 GDP의 60%로부터 1991년 69%까지 증가하였다가, 1992년부터 감소하여 1994-2004년간 60%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내 비국유부문의 비중은 1994년에 54%에서 2003-2009년간 약 46%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투자부문은 1994년 6%에서 2009년 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국유부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국내 비국유부문의 현상 유지와 외국인 투자부문의 비중의 증가하고 있다. 국유부문의 비중감소는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국영기업의 비국유기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것이며, 민영기업 수익증가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국유부문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는 것은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표 5-13>는 소유형태별 공업생산량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공업에서 국유부문이 1989-1990년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1995년까지 55% 이상을 점유하여 여전히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견 베트남 경제에서 국유부문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인 공유부문을 국유부문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유부문과 집체소유부문을 동시에 포함시킨다면, 어떠한 변화 추이가 나타날까?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유부문에 국유 및 집체소유부문을 포함시키는 것은 베트남의 공식입장에 부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1986년의 도이머이정책 채택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 국유경제부문의 비중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집체소유부문은 급격히 감소하고, 대신에 외국인투자부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5-12>에서 보듯이 공업생산량에서 집체소유부문은 1986년 28%, 1988년에 24%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12%, 1995년에는 1%이하로 감소하여 전체 경제에서 매우 미미한 부문이 되고 말았다. 국유부문과 집체소유부문을 포함하는 공유부문의 비중은 1986년에 84%에서 1990년에 66%, 1995년에 58%로 감소하였다. 1994년 가격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유부문의 비중은 1995년에 51%로 되었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43%로 하락하였다. 2000년대에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2001-2003년간 30%정도였다가 최근 2007년에 20%, 2008년에 19%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개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유부문의 증가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국유부문과 집체소유부문을 포함한 공유부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이제 그 비중은 20% 이하로 되어 1986년 84%의 1/4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베트남의 소유형태별 통계에서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으로 구분한 것은 사회주의적 공유부문에 포함되는 집체소유부문의 급격한 감소가 사회주의경제의 급격한 쇠퇴로 보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반면, 공업생산량에서 사유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1992년에야 2%를 넘어서 2000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사유부문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00년 전체 공업생산량에서 14%를 차지하였고,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져 2008년에는 30%에 이르렀다. 여기에 외국인투자부문을 합산하면, 공업부문에서 비국유부문의 비중은 1995년 50%로부터 2000년 64%, 2008년 82%로 증가하였다. 이제 공업부문에서 사유경제는 절대적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이처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은 베트남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제2절 베트남의 FDI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는 <표 5-14>에서 보듯이 1988년에 새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한 이래 투자집행액에서 볼 때 1988-2009년간 누계로 약 12,600건 약 2천억 달러에 달하였다. 실질적으로 1991년 3억 3천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한 이후 20억에서 30억 달러 사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2005년 3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2008년 85억 달러까지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미국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대폭 감소하여 2009년 현재 45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계약액과 실제 투자집행액을 비교하면 2009년 말까지 약 30%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직도 외국인이 베트남 경제에 갖는 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5-14. 베트남의 연도별 FDI

연도	건수	투자금액 (백만달러)	투자집행액 (백만달러)
1988	37	341.7	-
1989	67	525.5	-
1990	107	735.0	-
1991	152	1,291.5	328.8
1992	196	2,208.5	574.9
1993	274	3,037.4	1,017.5
1994	372	3,188.4	2,040.6
1995	415	6,937.2	2,556.0
1996	372	10,164.1	2,714.0
1997	349	5,590.7	3,115.0
1998	285	5,099.9	2,367.4
1999	327	2,565.4	2,334.9
2000	391	2,838.9	2,413.5
2001	555	3,142.8	2,450.5
2002	808	2,998.8	2,591.0
2003	791	3,191.2	2,650.0
2004	811	4,547.6	2,852.5
2005	970	6,839.8	3,308.8
2006	987	12,004.0	4,100.1
2007	1,544	21,347.8	6,740.0
2008	1,557	71,726.0	8,050.0
2009	1,208	23,107.3	4,500.0

자료 :GSO, 2010

<표 5-15>는 베트남과 다른 ASEAN국가들과 FDI유출입을 비교한 것이다. 베트남의 FDI유입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2000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ASEAN 국가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FDI유입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 베트남은 국제금융위기 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한 FDI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유출FDI 측면에서 보면 미국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8년 현재 말레이시아

150억 달러, 태국 27억 달러인 것에 비해 베트남은 1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것은 베트남이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자체 제조업생산에 집중하고 있을 뿐, 세계시장에 나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큼 기술적 역량이나 자본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15. ASEAN 5개국의 FDI의 유입과 유출

(단위 : 백만달러)

국가		연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인도 네시아	유입	180	1,092	4,495	8,338	4,914	6,928	9,318	4,877	
	유출	6	-11	150	-	-	-	-	-	
말레 이지아	유입	934	2,611	3,788	4,064	6,060	8,538	7,318	1,381	
	유출	201	129	2,026	2,972	6,084	11,280	14,988	8,038	
필리핀	유입	114	550	2,240	1,854	2,921	2,916	1,544	1,948	
	유출	86	22	125	189	103	3,536	259	359	
태국	유입	189	2,575	3,410	8,067	9,517	11,355	8,544	5,949	
	유출	3	154	-20	529	970	2,850	2,560	3,818	
베트남	유입	2	180	1,289	2,021	4,100	6,739	8,050	4,500	
	유출	-	-	-	65	85	150	100	112	

자료: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표 5-16>는 베트남에서 산업별로 투자된 FDI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1차 산업에 2.3%, 2차 산업에 56.5%, 3차 산업에는 41.3%가 투자 되었다. 2차 산업에 투자된 FDI 중 제조업에 80% 정도가 집중되었다. 3차산업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경영 및 자문서비스에 23%로 가장 많이 투자 되었고, 호텔·요식업에 10%의 자본이 투자되었다. 이런 추세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저임금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제조업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건설 붐에 편승한 부동산 투자, 자본회전이 상대적으로 빠른 호텔·요식업 등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6. 베트남의 산업부문별 FDI (1988-2009년간 누계)

산 업		건수	투자금액(US백만)	비율(%)
농림 수산업	농업·임업	575	3,837.7	2.0
	수산업	163	541.1	0.3
	소계	738	4,379.1	2.3
공업/ 건설/ 광산업	광산업	130	10,980.4	5.6
	제조업	7,475	88,579.5	45.6
	전기·가스·수도	72	2,231.4	1.1
	건설업	521	7,964.4	4.1
	소계	8,198	109,755.7	56.5
서비스	도소매업, 수리업	322	1,041.6	0.5
	호텔 요식업	379	19,402.8	10.0
	교통 창고 통신업	554	8,435.3	4.3
	금융업	69	1,103.7	0.6
	자문서비스	1,867	45,505.7	23.4
	교육훈련	128	275.8	0.1
	의료·사회원조	73	1,033.3	0.5
	레저·문화·체육	129	2,838.0	1.5
	개인 서비스	118	658.3	0.3
	소계	3,639	802,945	41.3
합계		12,575	194,429.5	100.0

자료 : GSO 2010, 이한우(2011), p.200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국 순위는 1988년부터 2008년까지 누계로 하면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순위로 상위를 차지하였다.⁴⁹⁾ 2009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2008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여 2007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미국, 케이먼 아일랜드, 한국 등이 많은 양의 투자를 허가받았다. 한국은 투자국 순위에서 3-5위를 차지하다가 2008년에 등록자본금 누계로 5위 투자국이 되었으나 <표 5-17>에서 보듯이 2009년 한 해에 19억 달러 투자허가를 받아 2009년까지 누계로 1위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미국은 2009년 한 해에 등록자본금 약 99억 5천만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국이었고 이로써 누

49) 이한우(2011), p.200

계로는 제6위 투자국이 되었다. 이처럼 베트남은 한국의 중요한 해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

표 5-17. 10대 외국인직접투자국

순위	국가	1988-2009년 간 누계	
		건수	자본(US백만)
1	한국	2,560	26,880.4
2	대만	2,260	22,618.8
3	말레이시아	395	17,202.3
4	일본	1,247	17,149.6
5	싱가포르	870	16,345.7
6	미국	589	15,403.1
7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495	15,261.4
8	홍콩	740	8,540.0
9	케이먼 아일랜드	44	6,758.4
10	태국	284	6,198.4

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법은 1987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외국인직접투자 누계는 1988년부터의 실적을 합산한 것임
 자료 : GSO 2009, 2010, 이한우(2011) p.201

제3절 베트남의 노동시장변화

1990년대에 들어 베트남의 부문별 산업구조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여타 국가들의 추세와 유사하게 농업부문의 비중이 줄고 공업과 서비스부문이 확대되고 있다. 도이머이정책을 채택한 1986년 농림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였다가, 1991년까지 40% 전후로 증가하였고 1992년부터 일부 예외 연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21%까지 하락하였다. 공업/건설부문은 1986년 당시 GDP의 29%였다가 1987-1991년간 하락세를 보였고, 199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09년 현재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1986년에 33%였다가 등락을 거듭하여 2009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표 5-18. 베트남 경제의 GDP, 무역과 고용지표

연도	고용인구 (백만)	1인당 (달러)	무역액 (억달러)	수출액 (억달러)	수입액 (억달러)	GDP (억달러)	무역/GDP (%)	평균임금 (thou. dong)
1987	28.5	77	20.3	8.5	11.8	51	39.8	143.8
1988	28.5	82	25.7	10.4	15.3	54	47.6	1712
1989	28.9	86	41.9	19.5	22.4	58	72.2	193.5
1990	29.4	90	51.5	24.0	27.5	61	84.4	212.5
1991	30.1	133	44.3	20.9	23.4	91	48.7	248.7
1992	30.9	136	51.2	25.8	25.4	95	53.9	275.4
1993	31.6	178	69.1	29.9	39.2	127	54.4	326.1
1994	32.3	218	98.8	40.5	58.3	159	62.1	452.1
1995	33.0	277	136.1	54.5	81.6	205	66.4	513.9
1996	33.8	323	184.0	72.6	111.4	243	75.7	598.2
1997	34.5	346	208.1	91.9	116.2	264	77.9	644.8
1998	35.2	347	208.9	93.6	115.3	267	78.2	718.3
1999	36.0	363	231.6	115.4	116.2	283	81.8	851.4
2000	37.6	390	301.2	144.8	156.4	307	98.1	933.5
2001	38.4	405	311.9	150.3	161.6	322	96.9	1073.7
2002	39.5	428	364.6	167.1	197.5	345	105.7	1216.4
2003	40.5	478	454.1	201.5	252.6	389	116.7	1386.3
2004	41.6	542	584.7	265.0	319.7	446	131.1	1582.3
2005	42.7	624	692.2	324.4	367.6	519	133.3	1639.9
2006	43.9	708	848.5	398.3	450.2	595	142.6	2021.3
2007	45.2	810	1111.9	485.6	626.8	688	161.6	2349.7
2008	46.5	1026	1433.9	626.8	807.1	881	162.7	2702.2
2009	47.7	1066	1270.5	571.0	699.5	926	137.1	3027.2
2010	49.1	1161	1560.2	722.4	837.8	1020	153.0	3259.5
2011	50.3	1326	2009.5	969.1	1040.4	1178	170.5	3775.2

자료 : www.gso.gov.vm, www.adb.org/statistics,
www.kostat.go.kr

개혁개방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빠른 경제성장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생산요소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의 투자증가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표 5-18>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에서 개혁개방 당시인 1987년 2천8백만 정도의 고용인구가 2011년 현재 5천만 명으로 매년 평균 90만 정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고용증가율이 연평균 2.9%씩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동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평균 8%를 상회하므로 베트남에서 고용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목임금은 꾸준히 상승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1990년 이후 상승하다가 아시아경제위기 때 경제불황으로 잠시 하락하다가 2005년까지 다시 상승하고 국제금융위기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다.

표 5-19. 베트남의 도시화진전

(단위:백만)

연 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인 구	66.0	72.0	77.6	82.4	83.3	84.2
농촌인구	53.1	57.3	58.7	60.1	60.2	60.5
도시인구	12.9	14.9	18.9	22.3	23.1	23.7
도 시 화	19.5	20.7	24.2	27.1	27.7	28.2

자료: ADB Statistics Database System, www.adb.org

<표 5-19>은 1990-2007년까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인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총인구에서 도시지역 인구가 차지하는 하는 비율인 도시화지표는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트남 정부가 호구제와 배급제를 사용하여 농촌-도시 간 인구가동을 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가 2007년에 거의 30%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도시에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농촌부문의 잉여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 잉여노동력은 농촌부문에 존재하는데 위장실업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기가 어려워 그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표 5-19>는 잉여노동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4절 소 결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공산당 지배의 정치체제는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대외적으로 개방경제를 표명하는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런 개혁개방정책이후 FDI를 적극 유치하고 잉여노동력을 활용하여 제조업을 육성하고 이것을 수출하는 경제구조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해 저자들 사이에 논란은 있지만⁵⁰⁾ 베트남의 성장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트남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방정책과 수출증가에 의해 뒷받침된 농업과 제조업의 성장 덕분이라는 설명에는 이론이 없다. 즉 개방정책을 통해 비교우위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고,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수출의 확대를 통해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그동안 급속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후반 수출주도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도국과 전환경제국(transition economy)인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다른 국가들과 뚜렷이 차별화된 높은 경제성장률, 높은 무역증가율과 무역의존도, 노동고용증가율

50) 실증분석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수출증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무역과 성장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Jung and Marshall(1985)의 연구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Chow(1987)는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출과 경제성장간에 상호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Nurkse(1961)는 수출을 ‘성장의 원동력’(engine of growth)이라고 하였다.

과 FDI의 유입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제6장 고용결정요인 분석

앞 장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정책이후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무역확대, FDI 유입, 고용증가, 높은 경제성장과 도시화 진전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 중에서 이 장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서 살펴본다.

제1절 이론적 모형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경제부문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개도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발하는 시장왜곡현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이렇게 시장이 왜곡된 상태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한 결과 FDI 유입, 무역확대, 고용증가, 도시화 진전과 고성장 등이 발생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고용증가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시도한다.

1. 잉여분출설(theory of vent for surplus)⁵¹⁾

A. Smith는 무역이익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즉 무역의 정태이익⁵²⁾과 동태이익⁵³⁾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역이익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무역을 하게 되면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에 노출된다. 이 때 소비자들은 국내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가지게 된다.

51) 유일선·송희준(2011) 참조

52)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절대열위에 있는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얻는 무역이익이다.

53) 무역이 시장확대를 가져오면 분업이 촉진된다. 이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이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걸 위해 기존 생산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출확대로 이어지고 무역은 더 확대된다. 또한 기존 생산물을 증가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여분의 토지나 노동 등 잉여 생산요소가 사용된다.

Myint(1958)는 이러한 Smith의 논리를 발전시켜 잉여분출설로 정립하였다. 이 이론은 무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생산에 투입되지 않는 여분의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무역이 시작되면 시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출입규모가 확대된다. 이때 수출증가를 위해서 잉여자원을 생산활동에 생산요소로서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잠재적인 생산력을 실제 생산력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즉 국제무역은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서 국내수요 이상의 여분의 생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잉여자원이 분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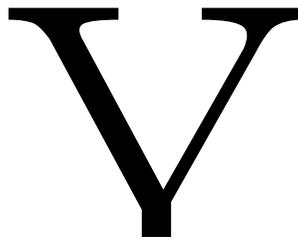
Myint의 잉여분출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잉여분출설은 완전고용을 가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교우위이론⁵⁵⁾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자본이 노동에 비해 많으면 노동한계생산물 더 높아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한다. 또한 노동이 자본에 비해 많으면 노동생산물이 더 낮아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임금이 하락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이 잘 작동되면 산업간 노동이동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전고용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시장왜곡으로 가격기구가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현상이다. 잉여분출설은 무역이 고용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는 국내시장구조의 왜곡으로 투자자원에 대한 국내 유효수요가 부족하여 잉여자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잉여분출설은 잉여자원에 외자유입의 역할

54) Myint는 Smith이론이 정태적 무역이익은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비판하고 당시 주목하지 않았던 무역이 잉여자원의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것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동태적 무역이익을 강조하였다.

55) 전통적인 비교우위이론은 D. Ricardo이론과 Heckscher-Ohlin-Samuelson이론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생산기술의 차이에서, 후자는 요소부존의 차이에서 비교우위를 끌어내고 있다.

을 인정한다. 이런 외국투자는 현재 사용자원의 생산력확대에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교통, 정보, 통신, 마케팅부문을 발달시키고 잉여자원을 이용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넷째, 경제에서 잉여자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종재의 과잉공급이 아니라 최종재의 유효수요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생수요인 생산요소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잉여자원이 존재한다.

그림 6-1. 잉여노동이 존재한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이익



<그림 6-1>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개방경제 하에서 잉여자원이 어떻게 분출하는가를 보여준다. 먼저 자본(K), 노동(L) 2개의 생산요소와 두 개의 재화(X재, Y재)가 존재하는 세계를 가정한다. 여기서 X재는 노동집약재이고 Y

재는 자본집약재이다.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을 전제하면 생산가능곡선은 aa처럼 원점에서 오목한 형태를 취한다. 이때 국제시장에서 Y재로 표시한 X재의 상대가격이 p_1 이라고 하면 이 국가는 A점에서 생산하고 D점에서 소비하게 된다. 이제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게 되면 생산가능곡선은 bb선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생산가능곡선은 Y재가 자본집약재이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할 때 Y재 쪽으로 편향되게 그러진다.

Rybczynski정리에 의해 국제가격이 일정할 때(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자본의 증가율보다 자본집약재인 Y재의 생산량의 증가율이 더 높게 그리고 노동집약재인 X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균형점은 E점이 된다. E점이 지속적인 균형점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의 잉여노동이 생산에 투여하게 되면 생산가능곡선은 cc로 확정된다. 그것은 X재가 노동집약재이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X재 편향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이 확장된다. 이 경우 노동의 생산성 증가를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C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F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DI가 이루어지기 전인 생산점 A와 FDI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생산점 C를 비교하면 FDI는 고용증가를 통해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증가는 소비점을 D점에서 F점으로 상승시키고 무역확대를 가져온다. 즉 FDI는 개도국의 잉여노동을 분출시켜 생산량 증가를 가져오고 수출을 확대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Lewis(1954) 모형⁵⁶⁾

잉여분출설은 FDI, 수출, 고용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56) 유일선·송희준(2011) 참조

Lewis(1954)는 개도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⁵⁷⁾로 인해 농촌지역에 위장실업 상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장실업은 농번기 때 노동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 한계생산성이 0이다.

그림 6-2. 농업부문의 노동의 한계생산물



먼저 Lewis 모형은 생계부문(농업부문)에서 노동공급이 무한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노동공급의 무한대란 농촌지역에서 노동공급곡선이 생계비 수준에서 수평선이 된다. 즉 최저 생계유지임금수준에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노동한계생산물은 생계유지임금수준과 같거나 적게 된다. 그래서 생

57) 도시지역에는 제조업이, 농촌지역에는 농업이 존재한다. 제조업에서는 임금이 생계비수준에서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농촌지역은 이 수준에서도 실업상태가 존재하는 노동시장구조를 의미한다.

계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하여도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노동의 투입과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관계를 묘사한 것은 <그림 6-2>와 같다. 일정한 토지량에서 노동고용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한계생산물이 증가하고 고용량이 OX 가 된 이후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하락하기 시작한다. 생계유지임금이 S 이면 노동고용이 OX_1 일 때 한계생산물과 일치한다. 노동고용이 OX_1 을 초과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생계유지임금이하로 하락하고 노동고용이 OX_2 를 초과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마이너스가 된다. 즉 OX_2 를 넘어서 노동고용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다.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0일 때 생계부문에서 다른 산업부문으로 노동을 이동시켜도 사회적 입장에서 볼 때 농업부문의 어떤 생산량도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0이 된다.

<그림 6-3>은 제조업부문의 노동투입과 노동의 한계생산물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곡선 NR 은 제조업부문의 노동한계생산물, OW 은 제조업부문 임금, OS 는 생계유지임금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부문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가설을 적용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과 임금이 동일한 P 점에서 고용량이 결정된다. 노동을 OM 만큼 고용했을 때 노동의 총생산물 $ONPM$ 은 노동의 임금으로 $OWPM$, 자본가의 소득으로 WNP 만큼 나뉘어 분배된다.

이제 개도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FDI유입정책을 실시했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으로 FDI 대부분은 제조업부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업부문에서 노동 한계생산물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3-3>에서 보듯이 한계생산물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이것이 곡선 N_1R_1 이다.

그림 6-3. 제조업부문의 한계생산물곡선과 고용량



제조업부문 임금(W)이 일정하면 제조업부문은 MM_1 만큼 노동고용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만큼의 노동량은 농촌부문의 위장실업자들이 도시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농촌부문의 위장실업의 도시 제조업이동은 기회비용이 0이기 때문에 농촌부문의 생산량 감소 없이 도시제조업에서는 노동 1단위당 생산량이 P_1M_1 만큼 증가한다. 이때 자본가의 소득은 WNP 에서 WN_1P_1 로 확대되며 이것이 다시 제조업에 재투자된다면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력은 이동하고 총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조업에 투자하면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Lewis는 ‘전환점’(turning point)이라 하였다. 전환점이 지나면 더 이상 노동의 한계생산물

이 0인 노동이 존재하지 않으며 도시지역으로 노동이동의 기회비용도 0이 아니다. 이때부터 임금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

Lewis 모형과 잉여분출설의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ewis모형은 자급자족 경제를 상정하고 제조업부문에 완전고용, 생계부문은 불완전고용상태를 가정했다. 둘째 노동이 농촌부문에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할 때 교통 정보통신부문에 특별한 기술진보없이 그 수준이 일정하다. 셋째 농촌부문에 노동이 남아도는 이유는 최종재에 대한 수요부족이 아니라 관련토지의 상대적인 부족 때문이다. 넷째 임금은 생계비수준에서 결정된다. 농촌지역은 임금이 생계비수준에서도 잉여노동이 존재한다.⁵⁸⁾

3. 소 결

개도국은 시장왜곡 현상으로 노동시장에서 불완전 고용이 일반화된 상태인 특징을 지닌다. 이런 개도국적 특징을 중국과 베트남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할 경우 Myint의 잉여분출설과 Lewis 모형이 어떻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은 Myint의 잉여분출설에 의하면 무역확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켜 기존상품의 생산을 증가하여 수출을 촉진시킨다. 이 과정에서 잉여노동이 고용되어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FDI는 기존 상품생산과 고용증가에 기여한다.

Lewis모형에 의하면 개도국은 과잉노동의 존재로 임금이 생계비수준에서 결정된다. 개혁개방정책으로 FDI를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제조업에 투자하면 제조업에서 노동한계생산물이 증가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노동의 수요

58) 제조업부문 총수익에서 전체 노동자의 생계비수준의 임금을 제외하면 자본가의 이윤이 남게 된다.

는 농촌지역의 위장실업상태의 노동이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하여 충족된다. FDI는 농촌지역의 노동한계생산물이 0인 노동력을 제조업부문의 노동생산물이 양(+)인 노동력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제2절 추정모형

앞 절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무역확대, 유입 FDI, 고용과 경제성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FDI증가는 농업부문의 잉여노동을 제조업으로 이동시켜 고용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둘째 수출확대는 잉여노동 활용을 통해 잉여 생산능력을 분출시킨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함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한다.

먼저 고용결정요인 대한 분석을 위해 Cobb-Douglas생산함수 형태를 가정한다.

$$Q = A^\gamma K_t^\alpha N_t^\beta \quad (6.1)$$

t 는 시간, Q 는 실질생산량, N 은 고용량, K 는 자본이다. α 와 β 는 총소득에서 자본의 분배몫과 노동의 분배몫을 나타내는 파라메타이다. A 는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량 증가를 나타내고 γ 는 생산과정의 능률을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여기서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임금과 같고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자본의 가격(c)⁵⁹⁾과 같아야 한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

59) ...①, ...②, ...③

①식을 ②식으로 나누어 K에 대해서 풀면 이 ③식을 (6.1)에 대입하면 (6.2)식이 구해진다

할 수 있다.

$$N_t = A^{-\frac{\gamma}{\alpha+\beta}} \left(\frac{\alpha}{\beta}\right)^{-\frac{\alpha}{\alpha+\beta}} \left(\frac{w_t}{c_t}\right)^{-\frac{\alpha}{\alpha+\beta}} Q_t^{\frac{1}{\alpha+\beta}} \quad (6.2)$$

(6-2)식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이것을 $\ln N_t$ 에 대해서 풀면 (6-3)식과 같은 기본 고용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N_t = \phi_0 + \phi_1 \ln\left(\frac{w_t}{c_t}\right) + \phi_2 \ln Q_t + \epsilon_t \quad (6.3)$$

I

I

I

ϵ_t 는 오차항 (disturbance term)이다. 이 식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임금(w_t/c_t)과 총생산량(Q_t)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상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총생산량이 증가하면 고용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ϕ_1 의 부호는 음, ϕ_2 의 부호는 양이 예측된다. 이제 기술진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진다면 $A_t = A_0 e^{\gamma T}$ 로 놓을 수 있다. 여기서 T 는 시간추세를 나타낸다. 그러면 (6.3)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ln N_t = \phi_0 + \phi_1 \ln\left(\frac{w_t}{c_t}\right) + \phi_2 \ln Q_t + \mu_0 T + \epsilon_t \quad (6.4)$$

여기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4)식을 변형한다. 앞서 지적 하듯이 수출은 잉여분출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같은 수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총생산량을 수출량과 국내소비용 생산량 (DQ)로 나눈다. 그러면 (6.4)식은 (6.5)식처럼 변형된다.

$$\ln N_t = \phi_0 + \phi_1 \ln\left(\frac{w_t}{c_t}\right) + \phi_2 \ln DQ_t + \phi_3 \ln X_t + \mu_0 T + \epsilon_t \quad (6.5)$$

수출이 확대될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학습효과나 지식과 정보 획득 등으로 기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기술변화부문을 나타내는 XS_t 를 식(4.5)와 같이 가정한다.

$$X_t = \alpha_0 + \alpha_1 \ln DQ_t + \alpha_2 \ln XS_t + \mu_0 T + \epsilon_t \quad (6.6)$$

XS_t 는 수출이 기술변화에 미치는 변수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수출/생산량 비율로 추정한다. 수출이 기술진보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때 노동수요 방정식은 식(7.6)과 같다.

$$\ln N_t = \phi_0 + \phi_1 \ln\left(\frac{w_t}{c_t}\right) + \phi_2 \ln Q_t + \phi_3 \ln XS_t + \mu_0 T + \epsilon_t \quad (6.7)$$

수출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XS_t 의 계수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만약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되면 수출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이러한 추정모형을 FDI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추정식에 FDI변수를 고려하여 (6.8)식을 유도한다.

$$\ln N_t = \phi_0 + \phi_1 \ln\left(\frac{w_t}{c_t}\right) + \phi_2 \ln Q_t + \phi_3 \ln FDI_t + \mu_0 T + \epsilon_t \quad (6.8)$$

(6.9)식은 (6.7)식에 FDI변수를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다.

$$\ln N_t = \phi_0 + \phi_1 \ln\left(\frac{w_t}{c_t}\right) + \phi_2 \ln DQ_t + \phi_3 \ln X_t + \phi_4 FDI_t + \mu_0 T + \epsilon_t \quad (6.9)$$

$$\ln N_t = \phi_0 + \phi_1 \ln\left(\frac{w_t}{c_t}\right) + \phi_2 \ln Q_t + \phi_3 \ln FS_t + \mu_0 T + \epsilon_t \quad (6.10)$$

(6.10)식은 FDI가 증가하면 경영에 대한 노하우와 새로운 지식습득에 의한 기술진보를 FDI침투지수⁶⁰⁾로 측정하여 그것의 고용효과를 위한 식이다. 이것도 수출침투지수와 마찬가지로 생산성증가에 따른 고용감소효과와 투자증가에 따른 고용증가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추정계수의 부호가 결정된다.

제3절 자료수집

1. 중국자료

중국은 개혁개방이후인 1978년부터 2010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국의 실질GDP, 고용인구, 임금에 관한 자료는 중국통계국 중국통계연감과

60) 여기서 FDI침투지수는 각년도 FDI/총생산액으로 나타냈다.

중국통계국 인터넷 사이트 www.stats.gov.cn 통해서 얻었다. 그리고 자본수익률을 나타내는 이자율 자료는 최근 10여년 계산된 것밖에 없고 그 이전에서 사회주의 정책에 의해 거의 금리가 고정되었다. 중국의 이자율은 거의 중앙인민은행에 의해서 고시된 이자율로 금융시장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율은 무시하고 임금자료만 가지고 상대적 임금변수로 삼았다. 중국통계연감에서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단위 위안화)를 가지고 추정하였다. 총무역액, 유입 FDI, 수출과 수입에 관한 자료는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局 編(2005),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彙編 :1949-2004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중국 상무부 인터넷에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2. 베트남 자료

베트남의 GDP, 고용인구, 총무역액과 이자율에 관한 2010년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 발간하는 ADB Statistics Database System에서 얻었다. 이것은 www.adb.org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임금자료는 UNCTAD와 ASEAN그룹에서 발행한 통계치를 조합하여 명목임금보다는 87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계산된 임금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본수익률을 나타내는 이자율 자료는 1990년부터 베트남의 평균저축이자율을 사용하였다. FDI는 UNCTAD 자료를 사용하였다. ADB에 발행한 자료에서 시계열자료가 1990년부터 시작되고 있으므로 1990-2009까지 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 하였다.

제4절 추정결과 및 해석

추정모형에서 제시된 추정식 6가지를 추정하였다. 첫 번째 식은 고용결정요인의 기본식인 (6.4)식이다. 둘 번째 식은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6.5)식이다. 세 번째 식은 수출의 기술진보효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6.7)식이다. 네 번째 식은 FD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6.8)식이다. 다섯 번째 식은 수출과 FDI가 동시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6.9)식이다. 여섯 번째 식은 FDI의 기술진보효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1. 중국의 추정결과 및 해석

앞 절에서 유도된 6개의 추정방정식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6-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상대임금(w/c)은 경제이론에서 예상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10%유의수준에서 음(-)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1% 상승하면 양(+)의 고용효과가 1% 유의수준에서 0.19- 0.25% 정도 나타났다. 내수생산, 수출과 FDI를 비교하면 내수생산은 0.15-0.26%의 양의 고용효과를, FDI는 0.08-0.10의 양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수출은 0.2-0.5%의 양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지는 못했다.

중국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취하면서 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고용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내수생산증가가 가장 큰 고용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수출이 고용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해외에 유입된 자본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과 결합하여 단순 조립 가공하여 노동집약재를 수출하는 형태에서 중국경제가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중국정부는 단순가공형태의 해외직접투자를 억제하고 기술획득 중심의 해외직접투자로 전환하여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외직접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중국에서 산업구조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1. 실증분석의 추정결과 : 중국경우

독립변수	종속변수: $\ln N_t$					
상수	1.2376 (0.1378)	-11.2664** (0.3782)	-31.542*** (0.0000)	3.1178 (0.5421)	-1.7834* (0.8543)	-3.2416** (0.5785)
$\ln(\frac{w_t}{c_t})$	-0.0034 (0.1213)	-0.0941* (0.0753)	0.0463 (0.2375)	-0.0041* (0.0953)	-0.0101* (0.0717)	-0.0257 (0.0953)
$\ln Q_t$	0.2491*** (0.0000)		0.2531*** (0.0005)	0.1945** (0.0321)		0.2211*** (0.0010)
$\ln DQ_t$		0.2603*** (0.0003)			0.1519** (0.0193)	
$\ln X_t$	0.00512 (0.1894)	0.0034* (0.0784)			0.0024 (0.1023)	
$\ln XS_t$			0.0050* (0.0834)			
$\ln FDI_t$				0.1023** (0.0413)	0.0823* (0.0745)	
$\ln FS_t$						0.0126* (0.0627)
T	0.0482* (0.0824)	0.0494* (0.0587)	0.0543** (0.0231)	0.0023 (0.2478)	0.0917 (0.2058)	0.0816** (0.0275)
AdjR ²	0.9621	0.9245	0.9112	0.9081	0.8734	0.9457
DW	1.524	1.004	1.256	1.843	1.8945	1.6346

주 : ()는 p-value임. *는 10%수준에서 **는 5%수준에서 ***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또 다른 설명은 제조업에 투자된 FDI가 중국의 잉여노동력을 고용하여 제조품을 생산하여(GDP 증가) 외국시장에 수출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은 FDI에 의한 생산량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수출은 그 생산량을 국제시장에 단지 판매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어느 설명이 더 유효한지 또 다른 분석이 필요

하겠지만 중국무역구조가 단순가공무역형태에서 상당한 기술집약재로 변해가고 있다는 현상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출증가와 FDI증가가 기술습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고용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출침투지수와 FDI침투지수 추정결과를 비교해보면 수출증가에 따른 기술습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FDI 경우 0.013%정도의 양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DI증가에 의한 기술습득에 의한 노동생산성에 의한 음의 고용효과를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투자효과가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수로 설명될 수 없는 기술진보가 고용효과에 미치는 효과는 0.04- 0.08%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국경제에서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총생산량과 내수생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⁶¹⁾ 수출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유입FDI에 의한 기술흡수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보다는 FDI가 더 유효하였다.

2. 베트남의 추정결과 및 해석

앞 절에서 유도된 6개의 추정방정식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6-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임금(w/c)은 경제이론에서 예상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10%유의수준에서 음(-)의 고용효과를 나타내었다. 상대임금이 1% 증가하면 고용이 0.004-0.09%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가 1%상승하면 양(+)의 고용효과가 1% 유의수준에서 0.20-0.28% 정도 나타났다. 내수생산, 수출과 FDI을 비교하면 내수생산은 0.17-0.20%의 양의 고용효과를, FDI는 0.05-0.06의 양의 고용효과를, 수출은 0.08-0.14%의 양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다.

61) 총생산량은 내수생산과 수출의 합으로 이루어지므로 총생산량의 고용효과 크다는 것은 수출이 고용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수생산에 의한 고용효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2. 고용효과에 추정결과 : 베트남의 경우

독립변수	종속변수: $\ln N_t$					
상수	1.237 (0.137)	-9.274 (0.378)	-4.562** (0.030)	3.418 (0.542)	-3.684 (0.854)	-3.216** (0.578)
$\ln(\frac{w_t}{c_t})$	-0.004 (0.121)	-0.091* (0.075)	0.023 (0.204)	-0.004* (0.095)	-0.009* (0.071)	-0.025 (0.095)
$\ln Q_t$	0.281** (0.010)		0.243*** (0.005)	0.205** (0.031)		0.221*** (0.001)
$\ln DQ_t$		0.173** (0.013)			0.189* (0.052)	
$\ln X_t$	0.087* (0.089)	0.075** (0.039)			0.135** (0.012)	
$\ln XS_t$			0.010 (0.112)			
$\ln FDI_t$				0.053** (0.041)	0.061* (0.064)	
$\ln FS_t$						0.016* (0.062)
T	0.048* (0.082)	0.039* (0.068)	0.034* (0.062)	0.002 (0.247)	0.078* (0.075)	0.081** (0.027)
AdjR ²	0.942	0.924	0.925	0.908	0.903	0.912
DW	1.644	1.514	1.841	1.943	1.674	1.735

주 : ()는 p-value임. *는 10%수준에서 **는 5%수준에서 ***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FDI를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잉여노동력과 결합하여 가공산업 중심의 제조품을 생산한다. 이런 가공제품을 외국시장에 수출함으로써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이런 소득 증가는 내수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내수생산을 증가시키

므로 내수생산에도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은 수출에 의해서 촉발되었지만 내수생산도 증가시켜 이런 과정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처럼 베트남 경제에서 수출, 경제성장과 고용은 상호 연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²⁾

수출증가와 FDI증가가 기술습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고용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출침투지수와 FDI침투지수 추정결과를 비교해보면 수출증가에 따른 기술습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FDI 경우 0.012%정도의 양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DI증가에 따른 기술습득에 의한 노동생산성이 유발한 음의 고용효과보다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투자효과가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수로 설명될 수 없는 기술진보가 고용효과에 미치는 효과는 0.04-0.08%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베트남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계수는 수출침투지수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10% 이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성장, 내수시장이 가장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수출과 FDI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과 FDI가 상당한 정도 고용효과가 있는 것은 먼저 제조업분야에서 해외에 유입된 자본과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과 결합하여 단순조립 가공하는 노동집약재를 수출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출과 유입FDI에 의한 기술흡수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보다는 FDI가 더 유효하였다. 이처럼 수출증가를 통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는 것은 단순가공무역형태를 아직도 베트남 경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2) 이성량(2007)은 Feder(1982)모형을 사용하여 베트남 경제에서 수출은 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베트남 경제에서 고용에 미치는 요인은 수출과 FDI가 잉여 노동력 고용확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GDP를 증가한다. 이러한 국민소득 증가는 내수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내수서비스부문의 고용을 확대한다. 이 내수부문의 고용확대는 또 다시 GDP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고용확대를 가져오는 순환구조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중국과 베트남의 비교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개혁개방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경제이다. 이런 개혁개방정책을 통해서 어떤 요인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추정결과 양국에서 나타난 유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서 양국에서 잉여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임금이 낮고 이에 따라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총생산 증가가 고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셋째 국내생산 증가가 수출증가보다 고용효과가 더 크다. 넷째 FDI증가 뿐만 아니라 FDI를 통한 기술진보도 고용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비해 양국의 상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은 베트남에 유의미한 고용증가를 가져오나 중국에는 유의미한 고용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 둘째 수출에 의한 기술진보는 중국에는 유의미한 고용증가를 가져오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 셋째 FDI에 의한 고용효과가 중국이 베트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유사점과 상이점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생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했던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잉여노동력이 풍부하고 자본이 없는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FDI, 해외차관)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이것을 수출한다. 이런 수출가공산업에서 1차적인 노동고용이 증가하면서 생산

제7장 결 론

이 논문은 중국과 베트남 두 국가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세 가지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지배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을 도모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는가? 이들 국가는 구소련과 동구유럽과 달리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았고 일반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했기 때문에 정치지배력을 확대하는데 기회비용이 적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의 경제적 성과는 어떠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 수출증가, 고용증가와 FDI의 확대를 가져왔다. 셋째 두 국가의 고용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잉여분출설과 Lewis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양국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였다. 둘째 총생산 증가가 고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셋째 국내생산 증가가 수출증가보다 고용효과가 더 크다. 넷째 FDI 증가뿐만 아니라 FDI를 통한 기술진보도 고용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비해 양국의 상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은 베트남에 유의미한 고용증가를 가져오나 중국에는 유의미한 고용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 둘째 수출에 의한 기술진보는 중국에는 유의미한 고용증가를 가져오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 셋째 FDI에 의한 고용효과가 중국이 베트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베트남은 가공수출무역 형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단순노동고용을 바탕으로 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면 중국은 단순한 수출증가보다는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숙련노동에 의한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한 투자효과로 고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이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전환점(turning point)에 이르기 전에 어느 정도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노동고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중국은 첨단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노동고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개방정도가 심화되면서 한국과 더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가지며 발전할 것이다. 양국에 사업진출을 모색하려는 기업은 양국의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정식 외(2000) 『현대중국경제』, 서울:교보문고
- 나카가네 카츠지(1999) 『중국경제발전론』, 서울:나남출판
- 김신행·김태기(2005), 『국제경제론』, 서울: 법문사
- 김현재, “베트남의 부패, 그 특징과 원인에 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
보」 제13권 2호, 한국부패학회, 2008, pp. 1-33
- 오용석(2004)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나남출판사
- 오용석(2004)“중국 무역체제개혁의 전개와 방향: WTO 가입 전후의 체제비교
론적 관점에서” 「비교경제연구」, 제 9권 제 2호
- 오인식(2009),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성과와 전망-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
로”, 「동남아시아연구」 제13권제2호, 한국동남아학회, pp251-286
- 유일선(2011), 중국경제의 고용결정요인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pp175-198
- 유일선, 송희준(2011), 개혁개방이후 베트남 경제의 고용결정요인분석, 「무역
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무역연구원, pp85-106.
- 이근 외(2005) 『중국의 기간산업경제』, 서울: 박영사
- 이성량.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수출과 경제성장”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2007, pp383-402
- 이한우(2011),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 홍인기(2004), 『최근 중국경제와 세계화·정보화』, 서울: 박영사

외국문헌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2002), 北京: 中國物資出版社

中國統計局, 中國統計年監 各年度

王紹熙(1990) 中國對外貿易理論和政策, 北京: 中國經濟貿易出版社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局 編(2005),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 彙編
1949-2004, 中國統計出版社

ADB(2011), Statistics Database System

Balasubramanayam, V.N.(1988), "Export Processing Zon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in D. Greenway(ed.),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London:Macmillan)

Curry, Jr., and Robert L.(1996), "Economic Growth and Transformation; Vietnam's Challeng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EAN Economic Bulletin* 13, no,2, pp229-239

Bhagwati, J. and Krueger, A.(1973), "Exchange Contro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May), pp418-427

Chow, Gregory(1985), *The Chinese Economy*, Harper and Row

Fu, Xiaolan(2004), "Export, FDI and Employment Growth in China", *Expor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Palgrave Macmillan : New York, pp:76-96

Falvey, R. and Kim, C.D.(1992), "timing and Sequencing Issues in Trade Liberalization", *Economic Journal*, 102(413), pp908-924

Fosu, A.K.(1996), "Primary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Economy*, 19(4) pp 465-475

- Frank C.R. et al(1975), *Foreign Trade Regime and Economic Development: South Korea*, NBER
- Hill, H.(2000), "Export Success against the Odds: A Vietnamese Case Study". *World Development*, Vol.28, No2, pp 283-300
- Hirshman, A.(1958),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ung, W.S. and Marshall, P. J.(1985), "Exports, Growth and Caus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8, pp9-15
- Keller, W.(2000), " Do Trade Patterns and Technology Flows Affect Productivity Growth?", *World Bank Economic Review*, 14(1), pp17-47
- Kindleberger, C.P.(1962), *Foreign Trade and the National Economy*,(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Kissing, D.B(1967), "Outward-Looking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Economic Journal*, pp303-319
- Kornai J.(1986),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clos*, 39, pp3-30
- Kornai, J. and Y. Qian(eds)(2009), *Market and Socialism*, Palgrave Macmillan
- Krueger, A.O.(1978),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Liberalization and Attempts and Consequences*,(Cambridge, MA:Ballinger for NBER)
- Krueger, A.O.(1995), *Trade Policy and Developing Nations*(Washington DC:Brooking Institutes)
- Krugman, P.(1991),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3), pp483-499
- Lewis, W. Arthur(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vol. 22, pp139-191
- Li, D.D. and Y. Wang(2009), "Market Socialism in China and Vietnam: Why has it Worked, so Far?" *Market and Socialism*, J. Kornai and Qian(eds), pp224-242
- Myint, Hla(1958), "The Classical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Journal*, LXVIII, june pp: 317-37
- Myint, Hla (1958), "Adam Smiths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Perspective of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Journal*, august, pp: 231-248
- Nurkse, R.(1961),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 Wicksell Lectures(Oxford: Basil Blackwell)
- Loi, Cu Chi, (2001), "Migration And The Labour Market in Asia : Recent Trends and Policies", *OECD Report*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0. 2011

웹사이트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2. Asia Development Bank(ADB), www.adb.org/statistics
3. General Statistics Office(GSO), www.gso.gvo.cn
4.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ww.stats.unctad.org/fdi
5. 중국상무부 www.mofa.gov.cn
6. 중국통계국 www.stats.gov.cn